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308호 【루계 제25086호】 주체104(2015)년 11월 4일 (수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우리 당의 과학중시, 인재중시사상과 사회주의조선의 위력을 과시하는 기념비적창조물

주체건축의 본보기, 로동당시대의 선경으로 훌륭히 일떠선 미래과학자거리 준공식 진행

【평양 11월 3일발 조선중앙통신】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백두산대국의 혁명적대경사로 성대히 경축한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소집에 관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결정서에 접하고 크나큰 격정에 넘쳐 강성국가건설의 전구마다에서 새로운 비약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고있는 시기에 수도 평양에 로동당시대의 또 하나의 선경거리로 일떠선 미래과학자거리가 준공되였다.

위대한 당의 과학중시, 인재중시사상과 사회주의조선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며 웅장화려하게 솟아오른 미래과학자거리는 우리 교육자, 과학자들을 참다운 애국자, 혁명가로 값높이 내세워주시며 모든 영광과 행복을 다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뜨거운 은정속에 마련된 사랑의 거리이다.

우리 나라를 가까운 앞날에 온 세계가 부러워하는 사회주의문명국의 높이에 올려세우려는 당의 구상에 따라 충성의 다리와 양각다리사이의 대동강기슭에 탑식, 묶음식의 고층, 초고층살림집들이 조화롭게 들어앉은 특색있는 미래과학자거리가 최상의 수준에서 건설됨으로써 평범한 교육자, 과학자들이 사회주의복을 마음껏 누리며 교육사업과 과학연구사업에 전념할수 있게 되였다.

웅근 하나의 도시를 방불케 하는 멋쟁이거리가 짧은 기간에 훌륭히 완공된것은 우리 당의 주체적건축미학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 자립경제의 잠재력에 대한 일대 시위로 되며 당의 부름에 산악같이 일떠서는 선군조선의 일심단결의 위력을 다시한번 온 세계에 과시한 사변으로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웅대한 수도건설구상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로 웅장화려하게 일떠선 미래과학자거리 준공식이 3일에 진행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준공식장에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준공식장에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만세!》,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만세!》라는 구호관들이 세워져있었다.

또한 《우리 당의 과학중시, 인재중시사상 만세!》, 《평양시를 선군문화의 중심, 본보기로 꾸리자!》라는 구호관들이 세워져있었다.

준공식장상공에는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만세!》,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 만세!》, 《결사옹위》, 《일심단결》이라는 구호와 글발들을 드리운 대형기구들이 떠있었다.

박봉주동지, 최태복동지, 박영식동지, 오수용동지, 로두철동지와 관계부문 일군들, 건설에 참가한 군대와 사회의 일군들, 인민군군인들, 건설자들, 지원자들, 교육자, 과학자들이 준공식에 참가하였다.

준공식은 《조선의 모습》노래주악으로 시작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내각총리인 박봉주동지가 준공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풍치수려한 대동강반에 최고의 문명을 최대의 속도로 창조해가는 백두산대국의 기상인양 불수록 멋있고 웅장화려한 미래과학자거리가 솟아오른것은 선군문화의 중심지로 더욱 훌륭히 변모되는 혁명의 수도 평양의 모습을 힘있게 떨치고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을 다그치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커다란 기쁨을 주는 일대 경사이라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미래과학자거리를 세계최상급의 거리로 건설하여 우리 당의 과학중시사상을 힘있게 과시하고 사회주의조선의 위력을 만방에 떨쳐야 합니다.》

연설자는 미래과학자거리는 영광스러운 김정은시대의 자랑스러운 창조물이라고 강조하고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우리 과학자들을 위해서는 천만금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체103(2014)년 5월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대동강기슭에 현대적인 과학자거리를 일떠세우실 웅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새로 건설하게 되는 거리를 《미래과학자거리》로 명명해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지난 2월 흙먼지가 흩날리는 공사현장을 찾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미래과학자거리 2단계 건설을 제기일에 무조건 완공하여 당창건 70돐을 맞으며 과학자들에게 선물로 안겨주자고 하시면서 인민군대의 강력한 건설력량을 증강해주시고 공사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주시였다.

53층의 초고층살림집을 비롯하여 하늘을 찌를듯 높이 솟아오른 미래과학자거리의 희한한 건축물들마다에는 몸소 건설주, 시공주가 되시여 하늘길에서도 보아주시고 현지에서도 보아주시며 거리형성안으로부터 설계, 시공, 건물들의 세부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이며 세심한 령도가 깃들어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얼마전 미래과학자거리를 또다시 찾으시고 궁궐같은 살림집들에서 돈 한푼 내지 않고 살게 될 평범한 교육자, 과학자들을 환한 미소속에 그려보시며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가 흉내낼수도, 지어낼수도 없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이라고, 미래과학자거리를 보니 10년을 1년으로 앞당기는 우리 조국이 10년후면 더욱 몰라보게 전변될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고 격정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연설자는 미래과학자거리는 우리 당의 건축미학사상과 숭고한 인민관이 철저히 구현된 현대문명의 본보기거리이라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수천세대의 규모가 큰 탑식, 묶음식의 고층, 초고층살림집들과 창광상점, 탁아소, 유치원, 학교를 비롯한 수많은 공공건물들, 각종 상업, 급양, 편의봉사망들, 휴식터, 체육공원들이 종합적으로 꾸려졌다고 그는 말하였다.

3 면 으 로 계 속

당 제7차대회를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자

백두의 칼바람을 전진의 원동력으로

낟알털기 80%계선을 돌파한 서해지구의 농촌들에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소집할데 대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에 접한 서해지구의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낟알털기에서 전례없는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11월 3일현재 서해지구 수십개 시, 군들이 낟알털기에서 80%계선을 돌파하였다. 이것은 당 제7차대회소집에 대한 감격적인 소식에 접하고 영광의 5월을 향하여 백두의 칼바람을 전진의 원동력으로 폭풍쳐 내달리려는 서해지구 농촌일군들과 근로자들의 불타는 열의의 힘있는 과시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업근로자들은 강성국가건설에서 중요전선의 하나인 농업전선을 맡고있다는 높은 긍지와 책임감을 깊이 간직하고 모든 농사일을 주인다운 립장에서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알뜰하고 깐지게 하여야 합니다.》

당 제7차대회를 우리 당력사에 특기할 혁명의 최전성기로 뜻깊게 맞이할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는 평안북도의 일군들은 벼단실어들이기와 낟알털기목표를 더 높이 세우고 경제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었다. 《백두의 칼바람에 돛을 달고 조선혁명의 침로따라 폭풍쳐 내달리자!》는 당의 구호가 벌마다 울려퍼지는 속에 혁신의 불바람이 세차게 몰아쳤다.

신의주시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밑에 강성국가건설에서 세기적인 변혁이 일어나고있는 시기에 당 제7차대회가 소집되는것은 우리 당과 혁명발전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으로 된다고 하면서 벼단실어들이기를 확고히 앞세워 낟알털기에서 높은 실적을 이룩하였다. 시안의 농장들에서는 일정계획을 종전보다 높이 세우고 력량을 총집중하여 낟알털기에서 90%계선을 돌파하였다. 운산, 천마, 향산군을 비롯한 도안의 많은 군들에서도 정치국결정서에 접한 이후 3일동안에 계획보다 더 많은 벼단을 실어들여 낟알털기에서 전례없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평안남도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당중앙을 따라 영원히 한길을 가려는 억척불변의 의지를 안고 벼단실어들이기와 낟알털기에서 높은 실적을 기록하였다. 이들은 신심과 락관에 넘쳐 뜨락또르를 비롯한 여러가지 운반수단들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벼단실어들이기를 다그치는것과 함께 종합탈곡기와 이동식탈곡기들의 리용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힘을 집중하였다.

평성시, 성천군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폭풍쳐 내달릴 불타는 열의밑에 로력과 기계수단을 총집중하여 그날계획은 그날로 어김없이 수행함으로써 낟알털기를 전부 끝냈다. 순천시에서도 뜨락또르를 비롯한 운반수단을 총동원하고 탈곡기마다 만부하를 걸어 90%이상의 낟알털기를 진행하였다.

황해북도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도 《가리라 백두산으로》,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를 비롯한 혁명적인 노래들을 힘차게 부르며 낟알털기실적을 높여나갔다. 전투현장에 내려간 일군들은 당 제7차대회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높이 받들어 강성국가건설에서 전례없는 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력사의 분수령으로 된다고 하면서 봄내, 여름내 애써 지어놓은 낟알을 한알도 허실없이 거두어들이기 위한 투쟁에로 농업근로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였다. 그리하여 전투장마다에서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다. 결과 연탄군에서는 낟알털기를 끝냈으며 승호군에서는 마지막단계에 들어섰다.

서해지구의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이룩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우리 당력사에 특기할 혁명의 최전성기로 빛내여갈 열의밑에 올해농사결속을 위해 계속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본사기자 윤 용 호

생산적앙양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에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뜻깊게 맞이할 일념안고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이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증산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분기마다 높이 세운 인민경제계획을 빛나게 완수한 이들은 지금 생산설비들의 만부하를 보장하면서 매일 세멘트생산과제를 훨씬 넘쳐 수행하는 자랑을 떨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이미 마련된 자립경제의 토대와 온갖 잠재력을 최대로 발동하여 인민생활향상과 경제강국건설에서 전환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모든 화력을 대고조전투장들에 필요한 세멘트를 더 많이 생산하도록 하는데 총집중하면서 정치사업을 화선식으로 참신하게 벌려 대중을 새로운 기적과 위훈창조에로 불러일으키고있다.

이곳 참모부에서는 내부예비를 최대한 탐구동원하고 원료, 연료보장사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게 설비리용과 로력조직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일군들이 아래단위들에 내려가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기동성있게 풀어주면서 로동자들과 함께 낮과 밤이 따로 없이 불꽃튀는 증산투쟁을 벌리고있다.

련합기업소의 모든 로동자, 기술자들이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행동으로 백두산대국의 창창한 미래를 앞당겨오는데 참답게 이바지해나갈 불타는 열의밑에 세멘트증산투쟁에 헌신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다.

특히 소성직장과 세멘트직장의 로동자들이 언제나 혁신의 앞장에서 질풍같이 내달리고있다. 상반년과 3.4분기에 이어 10월계획수행에서 남다른 모범을 보인 이들은 불리한 조건에서도 불판교체작업과 크링카분쇄기의 수리정비를 다그쳐 끝내고 소성로를 비롯한 설비들의 가동을 순간도 멈추지 않고있다.

중앙조종실의 조종사들이 설비들의 운영을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대로 진행해나갈때 공무직장과 주강직장을 비롯한 보장부문의 로동자들도 내부예비를 최대한 탐구동원하면서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매일 많은 량의 세멘트를 생산하는데 적극 기여하고있다.

상원석회석광산과 삼청광산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여러차례의 발파를 성과적으로 진행한데 기초하여 증산돌격전을 힘차게 벌려 생산실적을 부쩍 올리고있으며 화천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설비들을 굴진막장에 집중시키며 련속천공, 련속발파를 들이대고있다.

100%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원료와 연료에 기초하여 고질세멘트의 국산화를 실현함으로써 건설의 일대 번영기를 열어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한 련합기업소의 기술자들은 높은 자주정신과 과학기술의 위력을 더욱 힘있게 떨쳐가고있다.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가 강성국가건설위업을 받드는 길에서 언제나 전초병이 될데 대한 당의 크나큰 믿음을 심장깊이 새기고있는 이곳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대고조전투장들에 질좋은 세멘트를 제때에 더 많이 생산보장할 일념안고 증산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본사기자 정 순 성

인공잔디생산공정이 꾸려졌다

강원도에서

강원도의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 3대혁명소조원들과 근로자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체육강국, 문명국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첨단기술을 요구하는 인공잔디생산공정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꾸려놓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자력갱생은 우리의 힘, 우리의 자원, 우리의 기술로 온 세계에 앞서나가는 민족자존의 정신이며 최첨단돌파의 정신입니다.》

온 나라에 체육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며 과학기술로 이 땅우에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려는 당의 구상과 의도를 높이 받들고 도당위원회에서는 도의 체육발전과 경제발전에 이바지할수 있는 인공잔디생산공정을 자체의 힘으로 꾸릴것을 발기하고 구체적인 조직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이 사업을 당적으로 힘있게 떠밀고나갔다.

연구사업에 참가한 도안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여러곳을 찾아다니며 인공잔디생산과 관련한 문헌조사와 자료수집을 적극적으로 벌려나갔다. 그 어디에도 인공잔디생산공정과 관련한 설계도면이나 기술적지표가 없는 조건에서 이들은 모든것을 자체의 힘으로, 우리 식으로 해나갈것을 결심하였다.

도과학기술위원회일군들은 현장에서 과학자, 기술자들과 한덩어리가 되여 인공잔디의 재질분석으로부터 생산공정의 설계, 제작, 조종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술사업에 대한 지휘를 전투적으로 해나갔다.

조군실원산공업대학과 원산수산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은 서로의 창조적지혜를 합쳐가며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인공잔디생산의 첫 공정인 잔디밑지생산공정을 보름만에 꾸려놓았을뿐아니라 합사기제작과 PLC에 의한 인공잔디기계의 조종실현에 적극 이바지하였다.

원산고등교육도서인쇄공장 려경복동무와 도과학기술위원회 책임무원 김원철동무를 비롯한 과학자, 기술자들과 해당 단위들에서는 공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인공잔디기계를 한번 본적도 없고 파악도 전혀 없었지만 우리의 두뇌, 우리의 기술, 우리의 손으로 기어이 만들어낼 강한 민족적자존심과 배짱을 가지고 달라붙어 한달만에 인공잔디기계의 구조원리를 내놓은데 이어 립체전을 벌려 설계를 시작한 때로부터 석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자체의 힘으로 훌륭히 제작완성하였다.

원산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의 로동자, 기술자, 일군들은 주야전투를 벌려 자체의 힘으로는 어렵다고 하던 풀실용압출기제작을 보름만에 끝냈을뿐아니라 요구되는 기술적지표를 훌륭히 만족시키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인공잔디생산의 핵심부분개발과 기술적지표를 국제적수준에 올려세우기 위한 사업에서 국가과학원 경공업과학분원 수지가공연구소 박사 량건일동무를 비롯한 일군들과 과학자들의 헌신적이고 사심없는 방조와 노력이 컸다.

국가과학원 과학자들과 강원도의 과학자, 기술자, 3대혁명소조원들과 일군들은 첨단기술을 독점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에 파렬구를 내고 최신과학기술을 우리의것으로 만들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 공정의 핵심부분인 풀실용압출기노즐설계와 인공잔디의 특성과 수명제고, 생산공정의 합리화를 비롯하여 인공잔디생산에서 제기되는 수많은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였다.

도식료일용공업관리국을 비롯한 해당 단위들에서 인공잔디생산공정을 꾸리는데 필요한 설비와 자재, 협동생산품들을 제기일에 책임적으로 보장하였다.

최첨단돌파전은 바로 자기 초소와 일터에서 자기들이 벌려야 한다는것을 자각하고 떨쳐나선 강원도안의 과학자, 기술자,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애국적헌신성과 피타는 노력에 의하여 1년반이라는 짧은 기간에 인공잔디생산공정이 꾸려지는 자랑찬 성과가 이룩되였다.

현재 원산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에 꾸려진 인공잔디생산공정에서는 도안의 경기장들과 학교운동장, 상업망들에 인공잔디를 도입할수 있는 다량생산을 위한 종합시운전이 진행되고있다.

강원도에서 이룩된 이 성과는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성대히 경축한 그 기세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총공격전을 벌려나가고있는 우리 인민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해주고있다.

강 철 웅

20만산대발파 성과적으로 진행

차가평세멘트공장에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소집할데 대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를 무한한 격정속에 받아안은 차가평세멘트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이곳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높은 정치적열의를 안고 총진군속도를 더욱 높여나가고있는 속에 3일 공장의 광산분사업소에서 20만산대발파의 장쾌한 포성이 울려퍼졌다.

대발파가 성과적으로 진행됨으로써 세멘트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일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리였다.

뜻깊은 올해를 빛나게 장식할 일념으로 가슴 불태우며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당면한 생산을 다그치면서 대발파준비를 힘있게 밀고나갔다.

광산분사업소에서는 암질파악과 현지측량을 구체적으로 진행한데 기초하여 발파효률을 높일수 있는 설계를 짧은 기간에 완성하였다.

갱건설종합작업반의 로동계급이 발파갱굴진공사를 힘차게 내밀었다.

굴진2작업반에서는 합리적인 천공방법을 도입하고 교대별사회주의경쟁의 불길속에 앞장에서 내달렸으며 굴진3작업반에서는 압축기를 대담하게 산우에로 끌어올려 작업속도를 높임으로써 매일 계획을 120%로 넘쳐 수행하였다. 선진적인 작업방법을 널리 받아들인 굴진1작업반에서도 련속천공, 련속발파로 일정계획보다 앞당겨 굴뚫기를 끝내였다. 압축기작업반에서는 자검자수체계를 철저히 세워 설비들의 가동률을 높이였으며 공무작업반에서도 채굴설비들의 부속품가공을 적극 따라세웠다.

공장에서는 굴진공사가 끝나는데 맞게 력량을 집중하여 장약을 짧은 시간동안에 완료하였다.

대발파를 성과적으로 진행한 공장의 로동계급은 총천한 기세로 대건설전투장들에 더 많은 세멘트를 보내주기 위하여 생산돌격전을 힘차게 벌려나가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주체의 령도방식으로 백승을 떨쳐나가는 위대한 당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총돌격전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오늘 천만군민은 우리 당의 혁명사상과 령도방식의 위대성에 대하여 심장깊이 절감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고전적로작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당의 위업은 필승불패이다》**에서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조선로동당의 령도방식에 대하여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우리 당은 주체의 령도방식으로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가는 강위력한 혁명의 참모부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로동당은 주체의 령도방식으로 혁명과 건설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나가는 세련된 령도력을 지닌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되였다.》

령도방식은 당이 령도적정치조직으로서 혁명과 건설을 이끌어나가는 원칙과 방법을 말한다. 당의 령도방식에 관한 문제는 당건설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혁명하는 당이 령도방식문제를 옳게 해결하지 못하면 자기의 전투적위력을 높이 발휘할수 없다. 령도방식은 당의 령도력과 전투력을 좌우하는 기본요인이다.

당의 령도방식의 과학성과 우월성은 지도사상에 의하여 규정된다. 로동계급의 선행리론은 혁명투쟁에서 물질경제적요인을 기본으로 보면서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는것을 혁명의 근본방도로 제기하지 못하였다. 일부 사회주의집권당들이 지침으로 삼았던 선행리론의 제한성은 지난 세기에 뚜렷이 확증되였다. 혁명하는 당의 령도방식은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을 초석으로 할 때 혁명의 주체를 백방으로 강화하고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가는 위력한것으로 될수 있다. 이것은 혁명적당건설의 합법칙적요구이며 력사의 진리이다.

우리 당의 령도방식은 인민대중제일주의에 기초한 주체의 령도방식이며 여기에는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요구가 철저히 구현되여있다. 조선로동당이 장장 수십성상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을 백전백승의 한길로 확신성있게 이끌어나가는 세련된 혁명의 참모부로 위력떨치고있는 중요한 요인은 령도방식의 과학성과 진리성, 독창성과 우월성에 있다. 우리 당의 창건자, 건설자이신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창조하시고 구현하여오신 주체의 령도방식이 세기와 세기를 이어 꿋꿋이 계승되고있기에 우리 혁명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우리 당의 령도방식은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혁명의 주체인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인민대중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가장 위력한 령도방식이다.

인민대중의 힘은 곧 사상의 힘이며 집단주의의 위력이다. 사상이 모든것을 결정하며 사상적으로 각성된 집단의 힘은 무한대이다.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사상사업을 앞세우는것은 우리 당의 고유한 혁명령도원칙이다. 우리 당은 인민대중의 요구와 의사를 집대성하여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그것을 인민대중의 사상을 발동하여 관철하는 원칙을 일관하게 견지하여왔다. 위력한 사상사업, 정치사업으로 인민대중의 정신력과 창조력을 높이 발양시켜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전진시켜나가고있는 혁명의 참모부가 바로 우리 당이다. 5대교양을 실천투쟁과 밀접히 결합하여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고있는 우리 당의 령도에 의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 **김정일**애국주의자로, 투철한 신념과 반제계급의식을 만장약한 열혈투사로, 고상한 도덕적풍모를 지닌 인간으로 자라나고있다.

우리 당의 령도밑에 새로운 주체100년대진군길에서 더욱 힘있게 진행되고있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들은 대중적사상개조운동, 집단적혁신운동으로서 혁명과 건설에서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게 하는 힘있는 수단으로 되고있다. 천만군민이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조국번영을 위한 길에서 높이 발휘하는 비상한 정신력과 영웅적투쟁기풍, 고상한 집단주의적미풍은 대중운동을 끊임없이 심화발전시켜온 우리 당의 령도와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오늘 우리 당은 온 나라를 기적창조의 불도가니로 세차게 끓어번지도록 하기 위한 사상전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온 사회를 로동당의 붉은 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사상사업, 인민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는 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화선식으로 벌려나가는 속에서 대중적영웅주의의 위력은 비할바없이 높아지고있다. 특히 백두전구에서 선군시대의 청년돌격정신으로 영웅청년신화를 창조하며 건전하고 전투적인 청년문화를 꽃피운것은 당의 품속에서 교양육성된 조선청년들만이 이룩할수 있는 위훈이다.

인민대중에게 의거하고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고조를 일으켜나가는 투쟁과정에 우리 당은 비상한 조직력과 령도적수완을 지닌 로숙하고 세련된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되였다.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 향도자인 조선로동당의 령도따라 천만군민이 혁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폭풍쳐 내달리는 백두산대국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우리 당의 령도방식은 군사를 앞세우고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주력으로 하여 백승을 떨쳐나가는 가장 혁명적인 령도방식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혁명은 제국주의와의 힘의 대결을 동반한다. 반제군사전선은 나라와 민족, 사회주의의 존망을 판가리하는 자주시대 혁명의 기본전선이다. 그러므로 혁명하는 당의 령도방식은 군사를 제일국사로 내세우고 혁명군대의 위력을 최대로 높이는것으로 되여야 한다.

우리 당의 선군혁명령도는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군대를 핵심으로, 주력으로 하여 조국과 혁명, 사회주의를 보위하고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다그쳐나가는 혁명령도방식이다. 군대이자 당이고 국가이고 인민이라는것이 우리 당의 령도방식에 구현되여있는 독창적인 선군혁명원리이다. 수십성상에 걸치는 혁명의 길에서 우리 당의 선군령도는 혁명무력의 생명선으로, 혁명의 주체강화의 근본담보로, 불패의 강국건설의 전투적기치로 되여왔다.

전군을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인민군대에 대한 당의 령도가 확고히 실현되고 인민군대가 당의 로선과 정책을 맨 앞장에서 결사관철해나가는 백두산혁명강군으로 튼튼히 준비됨으로써 우리 당의 정치군사적지반이 철통같이 다져지게 되였다. 혁명적군인정신에 기초한 군대와 인민의 사상과 투쟁기풍의 일치를 실현하고 군민의 단합된 힘으로 강성번영의 진격로를 힘차게 열어나가는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령도방식이다. 당의 선군령도에 의하여 인민군대를 본보기로 한 혁명대오의 정예화가 실현되고 군민대단결이 강화되였으며 전당, 전민이 인민군대의 투쟁정신과 투쟁기풍으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게 되였다.

선군의 길에서 우리 당은 나라의 전반적국력을 비약적으로 높이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향상시켜나가는 귀중한 경험을 쌓았으며 이것은 백두산대국의 새 승리를 안아오게 하는 초석으로 되고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제국주의자들과의 장기간에 걸치는 치렬한 대결전에서 련전련승을 이룩하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수호한것은 당의 선군혁명령도가 있었기때문이다. 선군이야말로 견결한 혁명적원칙성과 창조성, 령활성을 가장 능숙하게 결합시킨 조선로동당의 세련된 혁명방식, 령도방식이다. 독창적인 선군령도로 주체혁명위업을 전진시켜나가는 투쟁과정에 우리 당의 령도력과 전투력은 비상히 강화되게 되였다.

지금 세계는 선군혁명령도, 선군정치로 반제반미대결전과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해나가는 우리 당의 령도력에 대한 격찬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어느 한 나라의 신문은 미국은 저들의 세계제패야망실현을 위해 반공화국압살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하면서 조선반도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있다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가 유지되고있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선군정치를 펼치고계시기때문이라고 평하였다.

선군조선은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는 미국도 감히 어쩌지 못하는 자주의 강국,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는 강력한 보루이라는것이 세계가 공인하는 우리 조국의 모습이다.

혁명하는 당의 령도력과 전투력은 당과 혁명을 이끄는 수령의 사상과 령도의 위대성에 의하여 결정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그 어떤 광풍이 불어와도 드놀줄 모르는 불변의 혁명적신념과 강철의 의지, 무비의 담력과 배짱으로 우리 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나가시는 걸출한 령도자이시며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믿음, 무한대한 창조의 열정과 기백으로 이 땅우에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시는 절세의 위인이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첫 기슭에서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가 우리 당의 영원한 지도사상으로,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가 우리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되고 모든 당건설과 당활동이 철두철미 수령님들의 뜻대로 진행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관을 당활동의 근본으로 삼고있는 우리 당은 언제나 인민대중을 생명의 뿌리로,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으로 여기고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고있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풀어나가고있다. 하기에 우리 인민들은 당을 운명의 등대로, 어머니로 믿고 따르고있으며 이 땅우에는 일심단결의 대화원이 더욱 자랑스럽게 펼쳐지게 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군령도에 의하여 오늘 우리 인민군장병들이 당이 가리키는 한 방향으로만 총구를 내대고 곧바로 나아가는 선군혁명의 억척의 지지점으로, 백전백승의 **김일성-김정일**군사전략전술과 영웅적전투정신, 완벽한 실전능력을 소유한 일당백의 용사들로 더욱 튼튼히 준비되고있다. 특히 우리 청년들은 조국보위초소와 사회주의대건설장마다에서 백두산청년강국의 주인공으로서의 용맹을 힘있게 떨치고있다. 《백두의 칼바람에 돛을 달고 조선혁명의 침로따라 폭풍쳐 내달리자!》, 이것이 위대한 **김정은**시대에 영웅청년신화를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려는 우리 청년들,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맹장들의 심장마다에 간직된 신념의 맹세, 투쟁의 구호이다.

주체의 령도방식으로 백승을 떨쳐나가는 위대한 당의 혁명사상과 백두의 칼바람을 전진의 원동력으로 하고 존엄높은 붉은 당기를 돛으로 삼아 휘황한 미래를 향하여 억세게 투쟁해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은 그 누구도 막지 못할것이다.

김 성 룡

위대한 당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결의에 넘쳐있다.
—당창건기념탑에서— 본사기자 김 광 혁 찍음

비범한 예지, 크나큰 믿음과 은정

명철한 가르치심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선군혁명령도의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 작가, 기자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주체의 필봉, 선군의 붓대를 높이 들고나갈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이날 그이께서는 자신께서는 언제나 문필가들을 중시한다고 하시면서 문필가들은 대중을 계몽시키고 각성시키는 시대의 선각자들이며 사상전선의 전초병들이라고, 우리 당의 사상전선에서 문필가들의 역할을 대신할만 한 사람들은 없다고 정을 담아 교시하시였다.

장내에 격정의 파도가 일렁이였다.

지성과 량심, 애국과 실력으로 조국과 혁명에 이바지하는 언론인들의 지위와 역할을 시대와 더불어 그토록 중시해주시는 우리 장군님의 믿음과 기대를 받아안기에는 너무도 가슴이 벅찼던것이였다.

이윽고 그들을 미더운 눈길로 바라보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과 건설에서 로동자와 농민을 상징하는 마치와 낫을 치차라고 한다면 지식인들, 문필가들을 상징하는 붓대는 윤활유라고 할수 있다고, 윤활유가 없으면 치차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하고 인차 마모되는것처럼 문필가들이 없으면 혁명과 건설이 생기와 활력을 잃게 된다고, 붓대가 있어야 혁명이 언제나 생기와 활력에 넘쳐 힘차게 전진할수 있다고 강조하시였다.

자자구구 심원한 뜻이 담겨져있는 그이의 교시는 순간에 문필가들의 경탄을 자아냈다.

비범한 예지와 명철한 판단력으로 붓대의 지위를 최상의 높이에 끌어올려주시는 걸출한 문필대가, 위대한 정치원로를 자애로운 스승으로 높이 모시고 사는 한없는 긍지와 자부로 문필가들의 가슴은 끝없이 설레였다.

예술소조공연을 보아주시며

몇해전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선중앙방송창설 65돐에 즈음하여 중앙방송위원회 종업원들이 준비한 예술소조공연을 보아주시였다.

공연에서 출연자들은 당과 수령의 령도따라 우리의 주체방송이 걸어온 65성상의 자랑찬 로정과 위대한 장군님의 품속에서 보람찬 언론활동을 벌려가고있는 자기들의 크나큰 긍지와 행복, 당의 영원한 동행자로 살며 투쟁할 신념과 의지를 격조높이 노래하였다.

공연이 끝나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종업원들이 선군시대에 창조된 군인문화를 적극 따라배워 자기들의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한 인식교양적의의가 큰 작품들을 가지고 시대정신이 맥박치는 훌륭한 공연을 진행한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그들에게 감사를 주시였다.

그러시고 일군들에게 자신께서는 우리 당의 주체사상, 선군정치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고있는 방송일군들과 같은 미더운 언론인들을 가지고있는것을 커다란 자랑으로 여긴다고, 중앙방송위원회 일군들이 영광의 날에나 준엄한 나날에나 혁명의 붓대와 마이크를 억세게 틀어쥐고 당과 수령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위하고 강성국가건설위업실현에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을 적극 고무추동하여온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일군들은 몸둘바를 몰랐다.

당의 선군정치를 총정으로 받들어가는 기수로 내세워주시고 사상전선의 전초병으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역할을 다하도록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신 자신의 공적은 뒤에 두시고 이처럼 과분한 평가를 주시기때문이였다.

일군들은 바쁘신 시간을 내시여 공연을 친히 보아주시고 크나큰 믿음과 은정을 베풀어주시는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에 솟구치는 격정을 누르지 못하면서 강성국가건설대전의 나팔수로서의 임무를 더욱 훌륭히 수행할 불타는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기자

혁명신념의 귀감으로 빛나는 고결한 생애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권동지의 탄생기념일에 즈음하여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소집에 관한 격동적인 소식에 접하여 더더욱 기세충천한 총진군대오의 앞길에 천만군민의 영원한 신념의 메아리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의 노래가 세차게 울려퍼지고있다.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조선혁명가들의 불멸의 넋이고 우리 시대의 주제가인 이 노래가사의 구절을 가슴에 뜨겁게 안아보느라면 혁명신념의 귀감으로 빛나는 열혈혁명투사의 모습이 먼저 떠오른다.

우리는 누리에 붉는 불이라고 하시며 생명의 마지막순간까지 조금도 굴함없이 법정에서, 감옥에서 일제놈들과 결연히 맞서싸우시던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권동지의 투쟁모습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그때 형권삼촌은 법정에서 일제의 죄상을 추상같이 단죄하면서 무장한 강도들과는 무장으로 싸워야 한다고 소리높이 웨치였다고 한다.》

김형권동지의 탄생 110돐을 맞는 뜻깊은 이 시각 우리 군대와 인민은 그이의 고결한 생애를 감회깊이 돌이켜보며 신념과 의리로 하는것이 혁명이고 신념과 의리로 하여 빛나는것이 혁명가의 인생행로이라는 고귀한 진리를 다시금 심장에 쪼아박는다.

김형권동지께서는 일찍부터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을 도와 혁명의 길에 나서시였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지도밑에 백산청년동맹과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의 지도핵심으로, 조선혁명군 지휘성원으로 사업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지도밑에 혁명투쟁을 적극적으로 벌려나가시던 나날에 김형권동지께서는 **김일성**동지이시야말로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구원해주실 태양이시며 그이의 탁월한 사상과 령도를 높이 받들 때만이 겨레의 숙원인 나라의 독립을 성취할수 있다는 철석의 신념을 더욱 깊이 간직하시였다.

날강도 일제와는 총을 들고 맞서싸워야 한다는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항일무장투쟁로선의 철저한 신봉자, 관철자가 바로 김형권동지이시였다.

력사적인 카륜회의에서 항일무장투쟁로선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첫 조치로서 조선혁명군을 결성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장차 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하기 위한 구상을 무르익히시였다.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계신 김형권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국내진출의 어려운 과업도 남먼저 받아안으시였다.

김형권동지께서 조선혁명군의 한 무장소조를 이끄시고 조국땅 파발리에 이르신것은 주체19(1930)년 8월이였다.

그때 소조원들과 함께 단천쪽으로 나가시던 김형권동지께서는 파발리부근의 황수원들쪽밭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오빠시》순사부장의 의심을 받게 되시였다.

《오빠시》놈은 1919년부터 풍산지방에 와서 조선사람들의 손발을 얽어맨 일제의 악질경관이였다. 낯선 사람만 나타나면 무턱대고 의심하고 폭행을 가하군 하였다. 그놈에게 붙은 《오빠시》라는 별명을 통해서도 그 고장 인민들의 원성이 얼마나 높았는가 하는것을 알수 있다.

김형권동지께서는 이곳 인민들의 뼈에 사무친 원한을 풀어주고 조국해방의 신심을 안겨주기 위하여 무장소조를 이끄시고 대담무쌍한 군사활동으로 대낮에 파발리 경찰관주재소를 습격하여 《오빠시》순사부장을 단호히 처단하시고 인민들앞에서 격동적인 반일연설을 하시였다.

파발리에서 총소리를 내고 공개적인 반일연설까지 한다는것은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니였다.

오직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의지, 담대한 배짱을 지니신 김형권동지께서만이 단행하실수 있는 대용단이였다.

파발리에서 원쑤들을 전률케 하신 김형권동지께서 국내깊이에까지 들어가 벌리신 투쟁은 참으로 눈부신것이였다.

조건은 어려웠으나 그이의 투쟁은 항상 적극적이였다.

혁명가는 절해고도에서도, 어떤 역경속에서도 신념을 잃지 말아야 하며 투쟁을 한순간도 멈추어서는 안된다!

이런 굳은 결심과 결사의 각오로 심장을 불태우시며 김형권동지께서는 리원군, 북청군, 홍원군 등 함경남도일대에 진출하시여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속에 혁명의 씨앗을 뿌려나가시였다.

진정 김형권동지께서 국내에서 진행하신 무장소조활동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국내진출방침의 빛나는 승리의 자욱이였으며 수령님께서 결성하신 조선혁명군의 위력을 널리 시위한 성스러운 투쟁로정이였다.

당시 이에 당황망조한 적들은 수많은 무장경찰을 동원하여 요소마다에 수색대를 배치하고 삼엄한 경비진을 펴면서 조선혁명군 무장소조원들을 체포하기 위하여 피눈이 되여 날뛰였다.

김형권동지의 투철한 혁명적신념은 옥중투쟁의 나날에 더욱 높이 파시되였다.

변절자의 밀고로 적들에게 체포되신 김형권동지께서는 비록 철창속에 갇힌 몸이였으나 혁명의 길에서는 순간도 투쟁을 멈추지 말고 원쑤들과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불굴의 혁명적의지를 지니시고 법정투쟁과 옥중투쟁을 과감히 벌려나가시였다.

원래 한번 옳다고 생각하신 일이라면 어떤 일이 있든지 기어이 해내고야마는 투지와 부당한것을 보고는 절대로 참지 못하는 불같은 성미를 지니신 김형권동지께서는 함흥지방법원에서 일제교형리들이 강도적인 살인재판을 벌려놓고 15년간의 징역형을 언도하였지만 조금도 비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재판장을 일제침략자들에 대한 심판장으로 만드시였다.

그때 김형권동지께서는 추상같은 목소리로 일제야말로 우리 나라를 빼앗은 침략자, 우리 나라의 은금보화를 략탈해가는 날강도, 무고한 조선인민을 닥치는대로 죽이는 살인자라고 단죄하시고 조선인민은 일제침략자들의 악독한 죄행을 천추에 잊지 않을것이며 천백배로 복수하고야말것이라고 단호히 선언하시면서 무장한 강도들과는 무장으로 싸워야 한다고 열변을 토하시였다. 그러시고나서 《강도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라!》, 《조선독립 만세!》를 소리높이 웨치시여 적들을 전률케 하시였다.

일제교형리들이 중형을 진 《정치범》들에 대한 《사상전향》을 강요할 때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무장투쟁을 활발히 벌리고계신다는 소식을 들으시였을 때에도 김형권동지께서는 수감자들을 불러일으키시여 감옥을 혁명투쟁의 무대로 전변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김형권동지의 충실성과 의리심은 또 얼마나 깨끗하고 열렬한것이였던가.

그이께서는 생의 마지막순간에 수감자들에게 《**김일성**은 내 조카이다. 그는 지금 만주에서 큰 혁명부대를 이끌고 왜놈들을 족치고있다. 그 부대가 국내에 쳐들어올 날은 멀지 않았다.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 무장으로 싸우라. 무장을 들고 싸워야 왜놈들을 쫓아내고 나라를 해방할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끝까지 싸워달라는 부탁을 남기시였다.

조선혁명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철석의 신념을 지니시고 생명의 마지막순간에도 조선인민혁명군이 국내에 진출할 날은 멀지 않았다고, 조국해방을 위해 무장을 들고 싸워야 한다고 절절하게 호소하신 김형권동지,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떤 역경속에서도 **김일성**장군님께서 주신 임무를 기어이 수행하여야 한다는 자각, 장군님께서 주신 명령을 끝까지 수행하기 전에는 죽을 권리조차 없다는 높은 자각을 지니고있었기에 김형권동지께서는 그처럼 모진 역경속에서도 옥중투쟁을 과감히 벌려 원쑤들을 당황망조케 하고 조선혁명가의 신념을 남김없이 시위할수 있었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렇다.

신념이 강한 사람일수록 단결의 중심을 귀중히 여긴다.

혁명의 붉은기를 지키는 참된 투사가 되시여 항일혁명의 길에 고귀한 청춘을 바치신 김형권동지의 혁명생애는 사람들에게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며 싸워야 하는가를 보여준 빛나는 귀감으로 되고있다.

주체혁명의 개척기에 위대한 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령도의 중심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언제나 누리에 붉는 불이 되고 철쇄를 마스는 마치가 되신 김형권동지의 영생의 모습을 우러르며 천만군민은 심장에 새긴다.

혁명신념은 불태우지도 꺾지도 못한다!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

우리 군대와 인민은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권동지께서 지니시였던 이 위대한 정신과 넋을 길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반드시 이룩하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김 성 남

하늘길에 새겨진 위대한 사랑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이 바란다면 하늘의 별도 따오고 돌우에도 꽃을 피워야 한다는것이 장군님께서 지니고계신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이고 의지였습니다.》

어느해 7월 하순이였다.

푸른 물결이 굽이쳐흐르는 어느 한 곳의 야영소에서는 학생들이 모여 체육경기를 하고있었다.

도적으로 진행된 일이여서 많은 인원이 참가하고있었다.

그런데 이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갑자기 무더기비가 쏟아져내리고 미처 어쩔 사이없이 강물이 불어나는바람에 그들은 모두 강안에 갇히게 되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폭우는 더 세차졌고 강상류에서 집채같은 물결이 야영소를 통채로 집어삼킬듯 요동치며 덮쳐들었다.

사나운 물결은 사정없이 밀려들어 무섭게 소용돌이치고있었다.

이 소식을 들은 일군들과 학부형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황급히 달려왔으나 광란하는 물결너머에 구원의 손길을 뻗칠수 없었다.

눈앞에 바라보면서도 시시각각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있는 학생들을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안타까움으로 하여 발을 동동 구르고 가슴을 쥐여뜯었다.

학생들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것인가.

그런데 이 시각 그곳 군당위원회 책임일군의 방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있었다.

전화종이 울려 송수화기를 든 일군은 삼가 옷깃을 여미였다.

당중앙위원회에서 걸어오는 전화였던것이다.

야영소의 실태를 보고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방금 조선인민군의 한개 부대를 출동시키도록 하시였으니 학생전원을 한명의 사고도 없이 구원해야 한다는 격동적인 소식이였다.

뒤이어 이 소식은 방송선전차의 고성기로 울려퍼졌다.

《동무들, 학생동무들, 지금 이 시각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의 비행기가 날아오고있습니다.》

순간 감격적인 소식에 접한 일군들과 학부형들 그리고 강안에 갇혀있던 학생들모두가 끝없는 환희에 넘쳤다. 얼마 안있어 하늘에서 비행기동음이 울려왔다.

모두의 마음들이 비행기동음이 가까와오는 하늘길로 향하여졌다.

인간의 생명, 우리 학생소년들을 가장 귀중히 여기시며 사랑에 사랑을 더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고마운 은정을 담아싣고 직승기들이 련이어 날아왔다.

서로 부둥켜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감격에 겨워하는 사람들의 얼굴마다에는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고마움이 넘쳐있었다.

바다기슭에서 조개잡이를 하다가 산악같은 파도에 실려 죽음에 직면했던 한 이름없는 처녀를 구원하기 위하여 비행기를 날리도록 하신 그 손길, 석탄증산을 위한 전투를 벌리던중 뜻하지 않은 일로 심한 화상을 입고 위급한 상태에 있던 탄부들을 위하여 구원의 작전을 펼쳐주신 은혜로운 그 손길,

정녕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은 하늘의 높이에도 바다의 깊이에도 비길수 없는 위대하고 무한대한것이였다.

이뿐만이 아니였다.

보기 드문 큰물로 하여 신의주지구가 물에 잠겼을 때 인민군대를 동원하여 단 한사람의 인명피해도 없도록 해주시고 물고기잡이를 하다가 조난당한 선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직승기를 띄우도록 해주신분도 바로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참으로 인간을 제일 귀중히 여기신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의 해빛아래 조국땅 그 어데서나 이름없는 평범한 인간들의 생명을 위하여 비행기가 날으는 뜨거운 인간사랑의 세계가 펼쳐질수 있었다.

본사기자 김 철 혁

주체건축의 본보기, 로동당시대의 선경으로 훌륭히 일떠선 미래과학자거리 준공식 진행

1면에서 계속

그는 주체성과 민족성, 독창성과 편리성, 조형예술성이 완벽한 조화를 이룬 미래과학자거리가 일떠섬으로써 사회주의문명국을 건설하는 우리 당의 리상과 투쟁목표가 얼마나 높고 웅대한가를 온 세상에 더욱 힘있게 과시할수 있게 되였다고 강조하였다.

미래과학자거리는 당이 결심하면 무조건 해내고야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결사관철의 정신과 군민협동작전의 위력이 안아온 위대한 창조물이라는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피끓는 심장마다에 받아안고 산악같이 떨쳐나선 군인건설자들이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기수, 본보기답게 초고층살림집을 비롯한 제일 큰 대상들을 말아단숨에의 공격정신을 발휘함으로써 우리 인민군대의 전투적기상을 힘있게 떨치고 영웅적건설신화를 창조하였다고 말하였다.

수도건설부문과 성, 중앙기관 돌격대를 비롯한 건설에 참가한 단위들의 건설자들과 지원자들도 새로운 평양정신, 평양속도창조자라는 높은 영예와 긍지를 가지고 대상별, 단계별과제를 일정계획대로 밀고나가기 위해 애국충정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친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당의 결심은 곧 실천이며 승리이라는것을 혁명적신념으로 간직하였기에 인민군군인들과 건설자들이 천년책임, 만년보증의 구호를 높이 들고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총공격전을 벌려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우리 식의 특색있는 과학자거리를 불과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세계가 보란듯이 일떠세울수 있었다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미래과학자거리는 우리 당만을 굳게 믿고 총정다해 받드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 흘린 땀방울이 생명수가 되여 떠올린 위대한 창조물이라고 하시면서 건설에서 로력적위훈을 세운 부대들과 단위들, 건설자들과 지원자들에게 조선로동당의 이름으로 감사를 주시는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시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연설자는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로 인민들에게 만복을 안겨주시며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천하제일강국을 일떠세워가시는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인사를 드리였다.

그는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비약적으로 전진하고있는 오늘 교육자, 과학자들에 대한 당의 믿음과 기대는 매우 크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모든 교육자, 과학자들은 하늘같은 사랑과 믿음을 거듭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덕을 한시도 잊지 말고 과학기술강국화, 인재강국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언제나 기수, 돌격대가 되여야 한다.

과학에는 국경이 없지만 우리 과학자들에게는 사회주의조국, 어머니당의 품이 있다는 드팀없는 신념과 과학기술로 세계를 디디고 올라서겠다는 야심만만한 배짱을 지니고 두뇌전, 실력전을 힘있게 벌려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수 있는 큼직큼직한 연구성과들을 끊임없이 창조하여야 한다.

우리는 미래과학자거리를 단숨에 건설한 그 기세, 그 본때로 평양시를 선군문화의 중심지로, 모든 면에서 으뜸가는 웅장화려한 도시로 더 잘 꾸리며 사회주의조국을 문명국의 체모에 맞게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미래과학자거리의 살림집들과 공공건물, 봉사시설의 관리운영을 맡은 단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관리운영사업을 짜고듦으로써 우리 당의 사랑이 교육자, 과학자들에게 더 뜨겁게 안겨지도록 하여야 한다.

연설자는 위대한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해나아가자고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호소를 심장에 쪼아박고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사회주의경제강국, 문명국건설에서 시대를 진감시키는 대비약, 대혁신을 끊임없이 일으킬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영광을 드리자 위대한 우리 당에》노래주악이 울리는 속에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군들이 늘이고 선 준공테프를 군대와 사회의 건설자들과 교육자, 과학자들이 끊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주체건축의 본보기거리, 로동당시대의 선경거리로 훌륭히 일떠선 미래과학자거리의 여러곳을 돌아보았다.

모두다 선군시대공로자들처럼 살며 투쟁하자!

전선지대 협동벌을 지켜가는 녀성기계화초병

선군시대공로자의 영예를 지닌 평강군축산경영위원회 송포목장 기계화작업반 뜨락또르운전수 김혜경동무

평강땅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면 사람들은 남다른 감정을 가지군 한다. 한것은 평강이 전선지대라는것과 함께 시대의 선구자로, 영웅으로 자라난 평강의 녀인들이 력사의 갈피에 소중히 기록되여있기때문일것이다. 조선예술영화 《어머니는 로수였다》 주인공의 원형인 리수덕녀성, 해방후 문맹퇴치운동의 선구자로 삶을 빛내인 리계산녀성은 평강의 평범한 녀인들이였다.

그들과 더불어 평강땅에 오늘 또 한명의 녀성이 참된 삶을 빛내이며 인생의 값높은 영광을 받아안았다. 그가 바로 선군시대공로자의 영예를 지닌 평강군축산경영위원회 송포목장 기계화작업반 뜨락또르운전수 김혜경동무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값있는 한생은 보람찬 삶의 순간순간으로 꽃피고 빛나는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높은 뜻을 받들어 단발머리처녀시절부터 근 30년간을 농촌기계화초병으로 전선지대 협동벌에 순결하고 진한 땀을 아낌없이 바쳐온 김혜경동무, 그의 삶을 놓고 우리는 선군시대 녀성들의 아름다운 삶이 어떻게 꽃펴나는가를 다시한번 가슴뜨겁게 안아본다.

나는 평강의 녀인이다

나서자란 고향땅을 사랑하며 훌륭하게 가꾸어가려는 사람에게는 설사 어릴 때의 체험이고 례사로왔던 일이라도 그것은 고향에 대한 사랑과 앞날에 대한 강렬한 지향을 낳는다.

김혜경동무가 뜨락또르운전수가 되여 고향을 꽃피우리라 결심하게 된것은 전선지대에 위치한 평강땅에서 나서자라며 평범하게 흘러간 나날들에 보고 듣고 느끼고 받아들인 생활체험들이 소중히 간직되여있었기때문이다.

그의 아버지는 뜨락또르운전수였고 어머니는 농장원이였다.

언제나 농장벌에 뜨락또르의 동음을 높이 울려가는 아버지와 봄내여름내 씨앗을 묻고 가꾸어가는 어머니에게는 하루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늘 마음을 쓰는 일이 있었다. 집뜨락의 과일나무에서 풍기는 그윽한 향기를 맡아보며 과일나무에 정성을 기울이고 터밭의 남새가 싱싱히 자랄 때에도 일손을 더욱 다그친 부모였다.

그렇게 애써 가꾼 과일과 남새를 군인들에게 보내줄 때면 더없이 기뻐하던 부모의 모습은 그의 맑은 눈동자에 거울처럼 비껴들었다.

《전선지대사람들은 자기의 본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되지.》

이것은 원호물자를 보내주는 날이면 늘 아버지가 외우던 말이였다.

전선지대사람, 그것은 김혜경동무가 유치원을 거쳐 학교길에 오르면서 더욱 가슴속깊이 새겨온 부름이였다.

그가 매일 오가는 마을길과 학교길에 군인들을 위하는 마음이 공기처럼 흐르지 않았던가.

무더운 여름철 밭에서 일을 하다가도 군인들이 땀흘리며 행군해가는것을 보면 시원한 물 한모금이라도 제손으로 대접하고서야 마음을 놓는 마을어른들, 친혈육의 정을 담아 동구밖멀리 행군대오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저어 바래주던 아버지, 어머니들의 모습은 어린 그의 마음에도 전선지대사람이라는 자각을 심어주었다.

그렇게 한해두해 자라면서 그는 날마다 커가는 행복이 어떻게 지켜지는것인지 점차 깨닫게 되였다.

중학시절 어느 봄날 문학시간이였다.

고향의 자랑이야기라는 주제로 진행된 글짓기수업은 그의 마음속에 깊은 여운을 남기였다. 아버지, 어머니들의 근면한 로동으로 나날이 아름다와지는 고향땅에서 남부러운것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뚝 부러지게 자랑할것도 없는것 같은 생각에 그는 끝내 글을 써내지 못하였다. 그의 이야기를 들은 선생님은 이야기해주었다.

온 나라가 다 아는 리수덕, 리계산어머니들에 대하여…

해방전 녀성의 몸으로 깊은 산중에 숨어 사냥으로 살아오다가 해방된 조국의 품에 안겨 조선로동당원으로 자라나고 전쟁시기에는 빛나는 위훈을 세우고 공화국영웅이 된 리수덕녀성, 위대한 수령님의 손길아래 우리 나라 문맹퇴치운동의 선구자로 삶을 빛내인 리계산녀성에 대한 이야기는 그에게 많은것을 생각하게 했다. 어릴적부터 사내처럼 벌차면서도 공상하기를 즐겨했던 그의 마음속에 희망의 나래가 펼쳐지기 시작하였다. 그는 평범하게 살고싶지 않았다.

평강의 녀인! 그들처럼 참된 삶을 빛내이고싶은 열망이 가슴을 세차게 흔들었다.

이렇게 그는 온 나라가 알고 우리 당이 기억하는 평강의 녀인이 될 꿈을 품게 되였다.

자라면서 아버지가 몰아가는 뜨락또르에 오르기를 즐겨하였던 그는 소중한 그 꿈을 꽃피우는 길이 뜨락또르운전수가 되는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절세의 위인들께서 농촌기계화초병으로, 사회주의농촌테제관철의 선구자로 값높이 내세워주신 뜨락또르운전수, 적들과 총부리를 맞대고있는 평강땅에서 일단 총포성이 울리면 제일먼저 전선으로 달려나가 전선지대사람의 본때를 보여주어야 할 사람도 다름아닌 기계화초병이라고 그는 생각했던것이다.

중학교졸업을 앞두고 그는 자기의 지망을 이렇게 썼다.

1지망: 뜨락또르운전수
2지망: 뜨락또르운전수
3지망: 뜨락또르운전수
…

중학교졸업후 어느 한 교치사업소에 배치받은 그가 뜨락또르단기강습을 마치고 마을에 《충성》호뜨락또르를 몰고왔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희한해하였는지 모른다. 마을늙은이들은 그의 모습을 대견하게 바라보며 엄지손가락을 내흔들었고 아이들은 꽃으로 운전칸을 장식해주면서 뜨락또르곁을 떠날줄 몰랐다.

김혜경동무의 가슴속에는 뜨락또르운전수라는 긍지가 한껏 차넘쳤다.

그때 나이는 18살, 그는 처녀시절의 첫걸음을 뜨락또르와 함께 떼였다.

하지만 우리 당이 바라는 참된 농촌기계화초병이 되는것은 헐한 일이 아니였다.

그가 송포협동농장(당시)으로 진출하여 기계화작업반에서 일하면서 《천리마》호뜨락또르를 맡은것은 그로부터 2년후였다.

《충성》호뜨락또르에 비해 무게가 몇배나 되는 무쇠철마를 다루는 일은 헐치 않았다. 며칠도 못되여 연약한 팔에 피멍이 지고 손바닥은 온통 물집투성이가 되여버렸다. 무쇠철마를 다루면서 그가 제일 애를 먹은것은 련결차를 끄는 일이였다. 벼단을 높이 쌓은 련결차를 끌다가 논판에 빠지기를 그 몇번인지 모른다.

그때마다 김혜경동무는 가을걷이로 바쁜 나날을 보내는 농장원들에게 부담을 더해주는것이 죄스러웠고 달려와 말없이 도와주는 기계화작업반원들에게도 송구스러웠다.

그가 뜨락또르를 몰기 시작하여 첫 봄밭갈이때였다.

뜨락또르를 몰아 논에 이르러 드넓은 협동벌을 바라보는 그의 가슴은 흥분으로 가득차올랐다. 아득히 바라보이는 논을 혼자서 다 갈아엎어도 성차지 않을것만 같았다.

그날 해지는 저녁까지 하루종일 쉼없이 논갈이를 하였지만 성차지 않았다. 그래서 다음날 새벽녘까지 논을 갈아엎었는데 그만 농장원들속에서 물의를 일으키고말았다.

다음날 아침 기계화작업반장 김완충동무의 호된 소리가 그의 귀청을 때리였다.

《오늘 동무는 논갈이에서 제외요. 농산기술학습부터 해야겠소.》

난데없이 내려진 처분에 그는 억울한 마음을 어쩔수 없었다.

내 혼자서 밤새 논갈이를 하지 않았는가. 그래 반장은 그것을 알기나 하는가.

《내가 왜 그런 처분을 받아야 합니까.》

오돌찬 목소리가 김완충동무에게로 련발사격하듯 날아갔다.

《내가 무엇때문에 오늘 논갈이를 못한다는겁니까?》

철부지처녀와의 말다툼이 어이없는듯 반장은 입을 다시며 휴계실을 나가버리고말았다.

김혜경동무는 반장의 처분을 따르지 않을수 없었다. 밤새 갈아엎은 논이 가을갈이한 논이여서 일정한 깊이로 갈아야 한다는것을 알수 없었다. 가을갈이때처럼 깊숙이만 갈면 좋은줄 알았던것이다.

농촌기계화초병!

김혜경동무가 이 말의 참뜻을 깨닫기까지에 처녀시절을 깡그리 바쳤다고 하면 사람들은 아마 쉽게 리해할수 없을것이다.

그랬다. 농촌기계화초병, 그 이름을 가슴에 안고 그는 뜨락또르와 함께 기름배인 작업복을 입고 남자들도 힘들어하는 길에 꽃같은 시절을 아낌없이 바쳤다.

그렇게 그는 고향에 대한 사랑과 애착심을 지니고 남다른 포부를 실천해나가는 길에서 녀성기계화초병으로 평강의 녀인이 되는 첫걸음을 내짚었다.

심장의 박동소리—뜨락또르의 동음

농촌기계화초병이 될 포부를 안고 처녀시절의 첫걸음을 내짚은 그가 제대군인 박상철동무와 가정을 이룬것은 그로부터 7년후였다. 그는 가정에 한명, 두명 태여나는 귀여운 자식들에게서 행복을 찾으며 학창시절의 소중한 꿈을 가정과 함께 더욱 꽃피우리라 결심하였다.

바로 그러한 때에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식량사정, 연유사정이 가정과 일터에 무겁게 들이닥쳤다.

하나둘 떨어서는 뜨락또르들앞에서 억대우같은 기계화초병들도 너무 안타까와 뜨락또르들을 어루쓸며 피눈물을 쏟았다.

정말 이대로 뜨락또르의 동음이 사라져버리고마는것인가.

겹쳐드는 고난속에서 학창시절에 품었던 남다른 포부를 실천해가는 길은 순탄치 않았다.

바로 그러한 시기 그에게 힘을 주고 희망을 안겨준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의 자욱자욱이였다.

어느날 김혜경동무는 쉬임없이 선군장정의 길을 이어가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 오성산에 오르시였다는 소식에 접하게 되였다.

평강땅에 태를 묻고 자란 사람치고 오성산이 어떤 곳인지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그는 끓어오르는 격정을 금할 길 없었다.

어둠이 깃든 그 저녁 어떻게 뜨락또르에 올라 운전대를 틀어잡았는지, 어떻게 오성산으로 향한 길에 들어섰는지 의식할수 없었다. 어둠보다 눈물이 먼저 앞을 가리웠다. 그의 눈앞으로는 오성산이 아니 원쑤들의 소굴이 점점 가까와지고있었다. 고요한 숲속 어디에선가 금시라도 불소나기가 쏟아져나오는것 같은 환영으로 온몸이 오싹하였다.

눈앞에는 민족의 대국상이후 우리 인민의 앞길에 엄혹한 시련을 조성해가며 《붕괴설》을 내돌리고있는 가증스러운 원쑤들의 몰골이 안겨들었다.

바로 그 원쑤놈들때문에 온 마을사람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며 쓰러지고있었다. 집집의 굴뚝에서 하나둘 연기가 사라져가더니 지금은 찾아보기조차 힘들다. 태용식량, 태용식품…

태여나 들어보지조차 못한 소리들이 나돈다. 이제는 너무도 례사로운 일이고 우리의 생활속에 없어서는 안될 말들이다.

그도 그랬다. 밤이면 젖을 뗀지도 오랜 세살 잡힌 아들이 엄마젖을 파고들며 가슴을 허비지 않았던가. 정말 이러다 온 마을이 쓰러지지 않을가 했을 때 군당일군들이 쌀배낭을 지고 내려와 집집의 문을 두드렸고 인민군군인들이 달려와 쓰러지는 마을사람들을 하나하나 일으켜세웠다.

집집의 부뚜막에 놓여지는 얼마 안되는 식량, 그것이 위대한 장군님을 어버이로 모시고 사는 사회주의대가정의 뜨락에 흐르는 정인줄 왜 모르랴.

그럴수록 그리웠다. 수도에서 멀리 떨어져있는 자식들을 두고 더 마음쓰시는 아버지장군님이 못 견디게 그리웠다.

뜨락또르를 몰고몰아가는 그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리고있었다.

이 나라 천만아들딸들이 성새가 되여 결사옹위해야 할 우리 장군님께서 오성산이 어디라고 그곳에 오르신단 말인가.

그는 심장으로 맹세했다. 죽더라도 장군님과 운명의 피줄을 이은 그길에서 조향륜을 더욱 억세게 틀어잡으리라.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김혜경동무는 고난앞에서 잠시라도 주저하며 동요할번 했던 나날들을 뼈저린 자책속에 총화지었다. 그리고 결연히 일어났다. 겹쳐든 고난을 박차고 온갖 회유와 횡설수설로 유혹하는 적들의 면전에서 보란듯이 뜨락또르의 동음을 더 높이 울려야 했다.

위대한 장군님의 오성산현지시찰소식에 접한 작업반원들도 한결같이 떨쳐나섰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세차게 나래치는 속에 대용연료를 생산하여 줄어만 드는 연유를 보충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졌다.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초행길이였다. 경험도 없었고 그 어떤 기술적담보도 없었다. 김혜경동무는 낮에는 반원들과 산에 올라 나무뿌리를 캤고 밤에는 도면을 그려가며 사색에 사색을 거듭하였다. 그가 대용연료생산을 위한 기술과 경험을 배우기 위해 경험자들과 기술자들을 찾아 걸은 밤길은 또 그 얼마인지 모른다.

거듭되는 실패앞에서도 주저앉지 않고 작업반자체로 끝끝내 대용연료를 생산해냈을 때 그 기쁨은 얼마나 컸던가. 그가 작업반원들과 함께 생산해낸 한방울한 방울의 대용연료, 그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발자욱에 걸음걸음 따라세우며 변함없이 뜨락또르의 동음을 높이 울리는데 활력을 부어준 생명수였다.

기계화의 비중을 높이기 위한 기술혁신안들을 창안도입할 때에도 그랬다.

창조적지혜와 재능을 합쳐 만든 5련식보습을 비롯한 창안품들을 제일먼저 자기 기대에서 시험하고 작업능률을 확정하며 언제나 기술혁신의 앞장에서 달려온 그였다.

어느해 밭갈이전투를 성과적으로 끝내고 다음공정의 영농작업을 위해 기대들의 점검보수를 진행할 때였다.

아침일찍 기계화작업반으로 나온 기계화작업반장 김완충동무는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기대를 완전히 분해해놓고 하나하나 부분품들을 점검해나가는 김혜경동무의 모습이 눈에 안겨들었던것이다. 뜨락또르를 완전히 분해하는 일은 년한있는 남자운전수들도 저어하는것이였다.

김완충동무의 머리에는 언제인가 군안의 모든 뜨락또르들에 대한 기술판정이 진행될 때 있었던 일이 문득 떠올랐다.

12월의 강추위속에서 상급단위일군들까지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기술판정은 매우 엄격하였다.

그날 뜨락또르발동을 거는 시간판정이 군적으로 한명밖에 없는 녀성뜨락또르운전수인 그의 기대에서 진행되게 되였다.

얼어붙은 기름을 녹이는데만도 많은 시간이 걸려야 하는 뜨락또르발동을 관정성원들이 정해준 시간보다 훨씬 당겨 발동을 걸었을 때 그를 지켜보고있던 사람들속에서는 열렬한 박수소리가 터져나왔다.

어떻게 엄동설한속에서 그처럼 짧은 시간안에 발동을 걸수 있었는가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는 괄괄한 성격그대로 이렇게 말하였다.

《녀자들은 남자들보다 심장이 뜨겁거든요. 그 열로 발동을 걸었지요.》

웃음속에 롱삼아 한 말이지만 그의 이야기를 들는 사람들의 가슴은 뜨거웠다.

수십년을 기계화초병으로 일하면서 기대관리에서도 어느 한구석의 빈틈도 없이 기계화작업반의 본보기뜨락또르운전수로 일해온 김혜경동무, 그는 정말 뜨거운 심장을 지닌 사람이였다.

대용연료생산을 위해 산에 올라가 나무뿌리를 캐다가 허기져 쓰러지는 반원들의 입에 품안에 넣어가지고온 몇알 안되는 감자마저 다 넣어주며 이 고난을 이겨내자고 이끌어주던 그였고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세 자식들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 얼마 안되는 강냉이자루를 들고 반원들의 집을 찾아다니며 고난의 천리를 가면 행복의 만리가 온다는 노래를 불러주기도 하던 김혜경동무였다. 지금도 기계화작업반원들은 그때를 못 잊어 그를 작업반의 맏누이로 부르며 정을 나누고 있다.

김 혜 경 동 무 (왼쪽에서 두번째)

뜨락또르운전수를 하면서 3명의 아이를 낳아키운 그에게 무슨 일인들 없었으랴.

뜨락또르에만 오르면 다른 모든 생각을 감감 잊군 하는 김혜경동무였다. 그래서 탁아소보육원이 때없이 아이를 안고 포전으로 나오는 일이 시작되였다.

하지만 그 일은 좀처럼 끝날줄 몰랐다. 나이차이가 심하지 않은 아이들 셋이 차례로 이러한 과정을 거치자니 여러해가 계속되였던것이다. 그때 아이를 안고 나오는 보육원을 보면 농장원들은 의례히 그의 뜨락또르를 가리켜주군 하였다고 한다.

그토록 뜨겁고도 열렬한 심장을 지니고 그가 수십년동안 뜨락또르의 동음을 높이 울리며 갈아엎은 논과 밭의 이랑들을 합치면 아마도 그 길이는 수천, 수만리를 헤아릴것이다.

우리 어찌 그것을 물리적인 수자로만 론할수 있으랴. 바로 그길은 위대한 장군님과 생사운명을 같이하며 그이를 따르는 길에서 영원히 변함이 없을 한 인간의 충정의 길, 신념의 길이였다.

행복한 나날이나, 준엄한 나날이나 가정의 행복을 조국의 미래에 얹고 변함없이 한길을 걸어온 그의 삶을 누구보다 깊이 헤아려준 품은 어머니당의 품이였다.

주체96(2007)년 9월 김혜경동무는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에 입당하는 영광을 지니게 되였다.

당원증을 받아안은 날 저녁 그는 이름할수 없는 격정에 휩싸이였다.

조선로동당원, 고귀한 그 부름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그는 나라의 쌀독을 채우는데 조금이라도 이바지할 마음을 안고 남편 박상철동무와 함께 여러차례에 걸쳐 비경지에서 거두어들인 수많은 알곡을 애국미로 나라에 바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학창시절의 꿈을 소중히 안고 평강땅에 녀성기계화초병으로 뜨락또르의 동음을 높이 울리며 생의 뚜렷한 자욱을 새겨온 김혜경동무에게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이 모셔진 시계를 안겨주도록 하시는 크나큰 은정을 또다시 베풀어주시였다.

수십년간을 변함없이 그가 전선지대 협동벌에서 울려온 뜨락또르의 동음, 그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야전승용차의 동음에 맞추어 높이 울려간 참된 녀성기계화초병의 삶의 박동, 심장의 박동이였다. 바로 자기 령도자의 어깨에 실린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려고 아글타글 애쓰며 스스로 무거운 짐을 걸머지고 나서는 이런 녀성들이 많아 내 조국이 더더욱 약동하는것이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신 현 규

산림 및 환경보호부문 전국과학기술발표회 진행

산림 및 환경보호부문 전국과학기술발표회가 3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였다.

발표회에는 국토환경보호성, 국가과학원, 기상수문국과 김일성종합대학, 평양건축종합대학, 여러 시, 군산림경영소 등의 일군들과 연구사, 기술자, 교원들이 참가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고전적로작 **《환경보호사업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숭고한 애국사업이다》** 발표 10돐을 맞으며 열린 발표회는 나라의 산림조성과 보호, 환경보호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과학기술적방도들을 적극 연구도입하는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였다.

이번 과학기술발표회에서는 우리 나라의 특성에 맞는 나무심기와 관리방법을 완성하고 수림화, 원림화, 과수원화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좋은 수종의 나무를 육종하여 널리 퍼치며 그 사름률을 결정적으로 높이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과학리론적으로 깊이있게 서술한 가치있는 론문들이 발표되였다.

또한 대기와 물의 오염을 막고 정화시설들을 현대화하며 나라의 전반적생태환경을 잘 보호하는것을 비롯하여 인민들이 가장 훌륭한 자연환경속에서 만복을 누리도록 하는데 이바지할수 있는 연구성과들을 반영한 론문들도 발표되였다.

발표회에서는 《여름에 심은 나무들의 사름률에 미치는 몇가지 약제처리의 영향》, 《계절에 관계없이 나무를 심을수 있는 뿌리내림촉진제의 합성공정개선과 응용에 대한 연구》, 《류동구식제진장치의 제진효률제고대책에 대한 연구》, 《수력발전소건설지역에서 사태발생위험도평가방법에 대한 연구》를 비롯한 산림복구전투와 환경보호사업에서 절박하게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현실적가치가 있는 10여건의 론문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우수한 론문제출자들에게 발표증서가 수여되였다.

발표회는 산림조성과 환경보호부문의 과학기술발전을 적극 추동하는데서 좋은 계기로 되였다.

체육관 새로 건설

라선시에 체육관이 새로 일떠서 개관하였다.

2층으로 된 체육관에는 롱구, 배구, 탁구, 정구, 바드민톤을 비롯한 다양한 종목의 경기를 할수 있는 경기장과 대형전자득점판, 수백석의 관람석, 체육기자재상점, 문화후생시설들이 그쯘히 갖추어져있다. 또한 건강운동실과 전자총사격장, 청량음료점 등이 특색있게 꾸려져있으며 야외에서는 정구와 롱구운동도 할수 있게 되여있다.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시에서는 현대적인 체육관을 건설할 목표밑에 강력한 건설력량을 조직하고 일판을 통이 크게 내밀었다.

일군들은 바다를 낀 지방의 특성이 잘 살아나면서도 여러 종목의 경기를 동시에 진행할수 있게 설계를 완성하고 설비와 자재를 선행시키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었다.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건설자들은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극복하면서 앞선 작업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기초굴착과 콩크리트치기를 와닥닥 해제끼고 강철구조물시공을 불이 번쩍 나게 끝내였다.

시공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면서 지붕, 천정공사를 다그치는 한편 각종 기자재설치와 설비조립을 책임적으로 해나갔다.

이들은 체육관주변의 콩크리트포장과 보도블로크깔기를 끝내고 수종이 좋은 나무들과 잔디로 록지를 조성함으로써 풍치를 한층 돋구어주었다.

새로 일떠선 체육관은 다채로운 체육활동을 벌리는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로 련일 흥성이고 있다.

총련 새 세대 일군대표단 도착

정희철 재일본조선청년동맹 중앙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련 새 세대 일군대표단이 3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총련 조선신보사대표단이 떠나갔다

《로동신문》창간 70돐 기념행사에 참가하였던 박일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련 조선신보사 대표단이 3일 비행기로 평양을 떠나갔다.

싱가포르녀성조직리사회대표단 귀국

말라티 다스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싱가포르녀성조직리사회대표단이 3일 귀국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채춘희녀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전송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신의주청년역의 면모를 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도, 시, 군들에서 철길강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근기있게 밀고나가면서 철도역과 철길주변정리도 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신의주철도분국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신의주청년역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개건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주체102(2013)년 3월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신의주청년역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개건할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우리 인민에게 보다 문명한 생활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신의주철도분국 당위원회에서는 뜻깊은 당창건 일흔돐전으로 신의주청년역개건공사를 끝내기 위한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렸다.

당위원회에서는 현장지휘부를 내오고 돌격대를 조직한데 이어 분국산하단위의 종업원들이 개건공사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하였다.

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장원일, 김순철, 조성국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조건에서도 대담하게 작전하면서 역개건공사를 줄기차게 밀고나갔다.

돌격대원들과 역의 종업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신의주청년역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보다 훌륭히 꾸릴 열의를 안고 치렬한 돌격전을 벌렸다.

5000㎡의 낡은 역홈지붕을 해체하고 높이가 10여m나 되는 40여개의 기둥콩크리트치기를 짧은 기간에 끝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돌격대원들과 분국산하의 종업원들은 이룩한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력량을 집중하여 신의주청년역사의 6400㎡의 타일붙이기를 진행하고 불장식을 특색있게 하였다.

리영일, 전영일, 김남일동무를 비롯한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역에 혁명사적교양실을 새로 꾸리고 그 주변에 고급석재깔기와 잔디심기를 끝내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지지도표식비를 정중히 건립하였다.

또한 6300㎡의 토량을 쌓아 높은 홈을 건설하고 역구내 1, 2번선 홈의 7700㎡의 바닥화강석깔기를 끝낸데 이어 지하도를 새로 건설하였다. 뿐만아니라 낮과 밤이 따로 없는 힘찬 돌격전을 벌려 2층으로 된 표찍기홀을 새로 건설함으로써 역을 리용하는 려객들의 편의를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수 있게 해놓았다.

현장지휘부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결사관철의 정신을 지니고 종전의 3배가 넘는 1만7000㎡의 역홈뿔트라스를 자체의 힘으로 조립하고 철판기와씌우기를 짧은 기간에 해제끼는 위훈을 창조하였다.

분국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대담한 공격정신으로 수백m의 1번선 철길옮기기와 전주세우기, 전차선놀이기를 끝낸데 이어 역구내에 3000㎡의 화단을 새로 조성함으로써 신의주청년역을 완전히 일신시키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철도성에서는 신의주청년역개건공사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알아보고 풀어주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공사가 적극 추진되도록 힘껏 밀어주었다.

개천철도국 당위원회에서는 개건공사에 참가한 돌격대원들을 물심량면으로 지원하였다.

당책임일군을 비롯한 평안북도의 일군들이 신의주청년역개건공사에 필요한 자재와 설비들을 제때에 보장해주게 하고 많은 지원물자를 공사참가자들에게 보내줌으로써 그들을 위훈창조에로 고무추동하였다.

아름차고 방대한 신의주청년역개건공사를 당창건 일흔돐전으로 끝낸 커다란 긍지와 자랑을 안고 분국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일터마다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송 창 윤

독자의 편지

사회주의보건일군의 참모습

행복의 요람속에 잠든 귀여운 딸애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저의 마음은 평양산원으로 달려가군 합니다.

지난 9월 어느날 저는 심한 진통으로 평양산원 3산파에 입원하게 되였습니다. 진통은 애기어머니가 되기 전에 응당 겪어야 하는것으로 생각하고 참았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아픔은 더해갔습니다. 밤이 되니 정신이 흐려질 정도였습니다. 여러가지 대책들이 취해졌으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파장 최명호선생님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빨리 환자를 수술실로!》

제가 의식을 회복했을 때는 다음날 아침이였습니다. 눈을 떠보니 담당의사인 리영광선생님이 기쁨의 미소를 지으며 저를 지켜보고있었습니다. 밤새 긴장한 치료전투를 벌리느라 눈에 피발이 선 그의 모습을 바라보는 저의 눈시울은 뜨겁게 젖어들었습니다.

저를 낳아키워준 부모도 자식을 평양산원에 입원시키고 안도의 숨을 쉬며 꿈속에서 귀여운 아기를 안아보고있을 때 저의 소생을 위해 뜨거운 사랑과 정을 기울인 이곳 의료일군들에 대한 고마움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수 있겠습니까.

저는 후에야 위급한 정황속에서 두 생명을 살려내기 위한 긴장한 수술이 진행된 사실이며 밤새 필요한 치료대책들을 세우면서 온갖 정성을 기울인 성실한 의료일군의 수고에 대하여 알게 되였습니다.

그후에도 리영광선생님은 저의 몸을 추세우기 위해 토끼곰파 여러가지 보약재들을 마련하여 안겨주며 친혈육의 정을 다하였습니다. 진정 그가 저에게 기울인 뜨거운 지성은 사회주의보건일군의 가슴속에서만 흘러나올수 있는것이였습니다. 이런 훌륭한 보건일군들이 있기에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우리 녀성들을 위해 마련해주신 사랑의 보석주단은 더욱 빛을 뿌리고있는것입니다.

락랑구역 락랑1동 14인민반 주 은 정

온 나라에 롱구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자

1등의 영예를 지니기까지

속도전청년돌격대 제2려단 일군들의 사업에서

올해에 속도전청년돌격대창립 40돐을 맞으며 진행된 속도전청년돌격대지도국적인 체육경기에서 제2려단이 종합1등의 영예를 지니였다. 그만큼 대중체육사업이 잘되고있는 이 려단의 자랑중의 자랑은 롱구경기에서 언제나 앞자리를 양보하지 않고있는것이다. 지난 시기에는 생각할수 없었던 려단의 이러한 성과는 결코 저절로 마련된것이 아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롱구를 장려하여야 합니다.》

오늘과 같이 지도국적으로 롱구최강팀의 영예를 계속 꽃피우고있는 려단일군들의 사업에서 무엇보다 주목되는것이 있다. 그것은 롱구를 장려하는 사업에 언제나 큰 힘을 넣고있는것이다.

새로 려단장사업을 시작하던 시기 리금철동무가 남달리 생각을 거듭한 문제가 있었다. 그것은 맡은 대상건설에서 앞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려단이 체육경기들에서는 응당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있는것이였다.

어느날 광명성절을 맞으며 진행하는 려단적인 체육경기조직을 위하여 일군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였다. 그때 종목별경기조직요강과 일정계획에 대하여 듣고있던 리금철동무는 롱구가 빠졌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이어 그는 지난 시기 려단의 대중체육사업진행정형을 보다 구체적으로 료해하는 과정에 축구나 배구는 계속 진행되고있지만 롱구는 산발적으로 이따금씩 진행되는 정도여서 경기종목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것도 알수 있었다. 결국 롱구에 대한 일군들의 관점과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

리금철동무는 일군들에게 축구나 배구도 좋지만 특히 롱구는 사람들의 몸단련에 아주 좋은 운동이다, 더우기 위대한 장군님께서 오래전에 벌써 롱구를 장려할데 대한 간곡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고 하면서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는데서 우리 청년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다같이 힘을 합쳐 려단안에 롱구바람을 본때있게 일으켜보자고 호소하였다. 이렇게 되여 그때부터 해마다 여러차례에 걸쳐 진행된 려단적인 체육경기에서는 언제나 롱구경기가 빠짐없이 벌어지게 되였다.

려단일군들의 사업에서 주목되는것은 또한 모든 돌격대원들의 롱구수준을 다같이 높이기 위해 이악하게 노력한 적극적인 탐구정신과 실천력이다.

온 려단에 점차 롱구바람이 일어번지게 되자 리금철동무가 사색의 줄기를 더욱 뻗쳐간 문제가 또 한가지 있었다.

어떻게 하면 려단의 전체 돌격대원들의 롱구기술을 다같이 끌어올릴것인가 하는것이였다. 몇몇 잘하는 선수들을 가지고 경기를 조직하는것으로써는 롱구를 대중화하였다고 할수 없는것은 자명한 리치이기때문이였다.

방도를 탐구하던 그는 려단장사업을 시작하던 초기에 처음으로 진행된 려단적인 롱구경기에서 다른 대대팀들을 압도적인 점수차이로 누르고 단연 우승한 대대팀에 대한 기억이 되살아났다.

우연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이 대대에는 롱구를 잘하는 돌격대원들이 적지 않았다.

그들을 다른 대대들에 한명씩 배치한다면 이들을 감독으로 내세워 대대들마다에서 롱구훈련을 심화시킬수 있고 따라서 려단의 전반적인 롱구수준을 높일수 있지 않겠는가.

려단장이 찾은 방도는 당조직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 하여 한대대에서 같이 일하던 롱구명수들이 다른 대대들에 분산배치되게 되였다.

이와 함께 려단일군들은 갓 입대한 돌격대원들속에서도 학교체육소조에서 일정한 수준의 롱구기초기술을 소유한 대상들도 찾아내여 대대들에 골고루 배치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진취적이며 적극적인 조직사업으로 하여 모든 대대들에서는 체육시간이나 짬시간을 리용하여 감독들의 알심있는 지도밑에 롱구기술을 련마하기도 하고 롱구경기규칙이며 다양한 기술동작들과 관련한 상식들을 배우기에 성수가 난 돌격대원들의 랑만적인 모습들이 차넘치게 되였으며 그 과정에 어느 단위에서나 롱구경기때마다 우승을 다투는 롱구강팀들이 자라나게 되였다.

윤석훈동무가 대대장으로 사업하고있는 대대만 놓고보아도 그렇다. 이 대대가까이에는 당의 은정속에 현대적인 체육공원이 꾸려져있다. 이 공원의 롱구장도 즐겨 리용하면서 누구나 마음껏 롱구기술을 련마해가는 대대돌격대원들의 열의는 매우 높다. 려단롱구팀의 주장도 배출한 대대의 전반적인 롱구수준은 지난 시기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 이렇듯 드높은 돌격대원들의 롱구열의는 다른 대대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롱구바람이 지도국적인 롱구경기에서 려단팀이 최강팀의 영예를 련이어 떨치는 자랑찬 성과를 안아온 튼튼한 밑천으로 되였다는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런 드세찬 체육열풍속에 려단안의 모든 돌격대원들이 튼튼히 단련한 몸과 솟구치는 청춘의 활력으로 존엄높은 백두산청년강국의 당당한 주인공답게 맡은 대상건설에서 위훈의 나래를 더 활짝 펼쳐가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현실성있는 방법론을 적극 탐구실천하여 온 집단을 롱구열풍으로 끓게 하고 그 기세로 혁신의 불바람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가는 이곳 려단일군들의 대중체육사업경험은 참으로 본받을만 한것이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지혁철

종착점은 없다!

원산시 신풍고급중학교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적으로 롱구를 많이 하는 기풍을 세우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붕—》

렬차의 기적소리가 메아리치는 평양역에서 귀를 기울이느라면 하나의 류다른 울림—열렬한 응원소리가 길손들의 발목을 붙잡군 한다. 얼마전에 우리도 그것을 목격했다.

련이어 터지는 박수소리, 북소리…

다름아닌 평양청년려객렬차승무대 처녀들의 롱구경기가 열기를 띠고 치렬하게 진행되고있었다.

처녀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승무대에 어떻게 저렇듯 수많은 사람들이 감탄할 정도로 훌륭한 롱구선수들이 있는가.

호기심과 기대를 안고 우리는 평양청년려객렬차승무대를 찾게 되였다. 시원스레 펼쳐진 롱구장과 이동식롱구대들은 우리들의 그 의문을 금시라도 풀어줄듯 처녀롱구선수들의 모습으로 정답게 안겨왔다.

그들의 롱구에 대한 드높은 열의는 이미 있던 좁고 협소한것대신 이동식롱구대까지 갖춘 새 롱구장이 생겨난 사실 하나만으로도 과히 짐작할수 있었다.

일년 열두달 하루도 빈짐이 없이 렬차를 타고다니며 수많은 손님들을 맞고보내야 하는 직업상특성으로 볼 때 언제 체육경기까지 할 시간적여유가 있는가 하는것이 처음 이곳 승무대처녀들의 생각이였다고 한다.

게다가 롱구는 자기들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처녀들도 있었다는것이였다.

이곳 일군인 김상철동무는 허나 이악쟁이로 알려진 몇명의 처녀들이 선봉이 되여 배구 하나만으로는 성차지 않는다며 용감히 롱구장에 뛰여들었다고 웃음속에 회억하며 말을 이어나갔다.

《체육은 젊음의 상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있는 곳에 체육열의가 나래치지 않는다면 그러한 우리 처녀들의 생활은 꽃이 없는 화단과 같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당조직의 적극적인 지지와 방조속에서 선구자들의 뒤를 따라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처녀들이 하나둘 롱구장에 나서게 되였고 이제는 짬시간도 아껴가며 롱구훈련을 하느라 여념이 없게 되였다.

심지어 어떤 처녀들은 롱구배우기에 이악하게 달라붙어 마침내 조약, 먼거리던져넣기 등 여러가지 재치있는 동작들을 펼쳐보이는 단계에 올라섰다.

이것을 어찌 처녀들의 승벽심과 자존심에 관한 문제라고만 말할수 있겠는가.

바로 우리 당의 대중체육방침을 자기들의 일터에서도 현실로 꽃피워나가려는 승무대처녀들의 불같은 정열과 열화같은 공감이 펼친 랑만넘친 화폭이다.

롱구장을 종횡무진하며 훌륭한 기술동작수행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한 선수는 취재를 끝마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롱구에 대한, 체육에 대한 우리 청년들의 열의에는 종착점이 없을겁니다.》

길지 않은 이 말속에도 체육으로 흥하며 끊임없이 약동하는 내 조국의 밝은 모습, 우리 당 체육정책의 위대한 생활력이 비껴있는것 아니겠는가.

강효심

학교의 자랑—드높은 롱구열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학교체육사업을 개선강화하여야 합니다.》

원산시 신풍고급중학교는 롱구를 잘하는 학교로 소문난 단위이다. 학교의 롱구소조운영이 언제나 정상화되고 학생들의 롱구열의가 매우 높다. 이곳 롱구선수들은 전국적인 롱구경기들에도 참가하여 10여차에 걸쳐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학교에서 지난 기간 롱구소조운영을 비롯한 체육사업에 큰 힘을 넣어온 나날에 학생들의 열의는 끊임없이 높아졌다. 의례히 파외시간이 되면 운동장이 좁다 할 정도로 많은 학생들이 모여들어 롱구, 축구, 배구 등 다양한 체육활동을 벌리군 한다.

특히 롱구장의 분위기가 매우 이채롭다. 소조지도교원의 지도를 받으며 롱구기초기술훈련에 열중하고있는 소조원들의 열정넘친 모습도 볼만 하지만 기어이 소조에 망라되려는 열망을 안고 롱구공을 한알씩 옆에 끼고 형님, 누나들의 훈련모습을 주의깊게 보고 나름대로 해보기도 하는 아래학년학생들의 모습도 참으로 대견스럽다.

이뿐이 아니다.

소조원들 못지 않게 기술을 련마하여 한번 맞서보자는 승벽심을 안고 자체훈련을 열심히 하는 학생들도 많고 학급별경기도 활발히 진행되고있으며 다른 소조들에 망라된 학생들까지도 롱구기술을 소유하겠다는 열의를 가지고 짬시간에 운동장에 나와 롱구를 하는 모습이야말로 롱구를 잘하기로 소문난 학교의 특색을 살리는 광경이라고 할수 있다.

교장 윤철수동무는 말하였다.

《지금으로부터 근 20년전 우리 학교는 전국의 모든 학교들과 마찬가지로 위대한 장군님의 은정어린 롱구공을 받아안았습니다. 그때부터 학교에서는 롱구소조운영을 정상화하면서 현재까지 롱구를 잘하는 학교의 명예를 떨치고있습니다. 제가 교장사업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넘겨받은것도 롱구소조명단이였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학생들의 롱구열의를 부단히 높여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과 은정에 보답하겠습니다.》

본사기자

온실식집짐승우리를 널리 도입

자강도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협동농장들에서 축산작업반과 비육분조들을 잘 꾸리고 실리있게 운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자강도에서 축산업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려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도적으로 9월말까지 협동농장들의 축산작업반, 비육분조들에 천수백개의 온실식집짐승우리가 새로 건설되였다.

도의 협동농장축산작업반, 비육분조들에 비닐박막을 씌운 온실식집짐승우리가 새로 건설되여 땔감을 쓰지 않고 겨울에도 고기와 새끼생산을 늘이면서 많은 거름을 생산할수 있게 되였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축산부문 일군들은 다른 지방에 비해 겨울이 긴 도의 특성에 맞게 태양빛, 집짐승우리바닥열, 퇴적장열을 효과있게 리용하여 축산물생산을 늘이기로 하였다. 이들은 협동농장들의 축산작업반, 비육분조들에 표준설계를 내려보내고 벽체쌓기, 퇴적장만들기 등 온실식집짐승우리건설에서 기술규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도록 지도사업을 짜고들었다.

도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장강군 읍협동농장 농산제4작업반 비육분조, 강계시 동부남새전문협동농장 축산작업반을 본보기단위로 정하고 짧은 기간에 온실식집짐승우리를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건설하도록 적극 도와주었다.

도의 일군들은 보여주기사업을 진행하여 시, 군당위원회 책임일군들과 농업부문의 일군들에게 온실식집짐승우리의 우월성을 깊이 인식시켰다.

시, 군들의 일군들은 협동농장들에 나가 축산작업반, 비육분조들에서 벌어지는 온실식집짐승우리건설에 깊은 관심을 돌리면서 박막, 목재, 세멘트를 비롯한 건설자재들을 제때에 보장해주기 위한 대책을 세워나갔다. 온실식집짐승우리건설이 경쟁적으로 활발히 벌어졌다. 장강군, 강계시, 전천군, 중강군 일군들이 온실식집짐승우리건설에서 모범을 보이였다.

도의 일군들은 록화편집물을 만들어 흔한 지방자재를 리용하여 온실식집짐승우리건설을 끝낸 단위들과 큰단백풀서식장까지 갖추어놓고 집짐승기르기에서 성과를 거두고있는 단위들의 좋은 성과와 경험을 널리 일반화하였다.

도의 축산부문 일군들은 온실식집짐승우리건설이 진척되는데 맞게 생산한 종자돼지들을 시, 군돼지종축장들에 보장해주고 그곳에서 협동농장축산작업반, 비육분조들에 종자돼지를 제때에 보내주도록 하였다.

강계시 동부남새전문협동농장 축산작업반에서는 먹이가공실과 량통식돼지우리, 한해에 1천t의 유기질거름을 생산할수 있는 퇴적장을 갖춘 500㎡의 온실식집짐승우리에서 돼지, 오리, 게사니, 닭을 비롯한 많은 집짐승을 기르고있다. 그리고 온실공간을 효과있게 리용하여 부루, 파, 쑥갓을 비롯한 남새도 생산하고있다. 농장의 일군들은 온실식집짐승우리에서 겨울동안 새끼돼지생산을 전해에 비해 3배이상 높일수 있다고 자신심있게 말하고있다.

지금 도의 축산작업반들과 비육분조들에서는 새로 건설한 온실식집짐승우리를 리용하여 돼지, 닭, 토끼, 오리 등 많은 집짐승을 기르고있다.

특파기자 동세웅

창조의 기준

청진청년역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

탐구심이 강한 청년들, 보배들, 정열가들…

이것은 청진청년역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에 대한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 려행하는 손님들의 한결같은 평가이다.

그들이 어떻게 되여 대중으로부터 이런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되였는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3대혁명소조원들은 두뇌전, 기술전을 과감하게 벌려 기술혁신과 창의고안의 명수, 최첨단돌파전의 선구자가 되여야 합니다.》

3대혁명소조 책임자 김영근동무를 비롯한 이곳 소조원들이 역기다림칸에 새로운 전자알림판을 만들어 설치하였을 때였다.

손님들의 려행에 도움을 줄수 있는 또 하나의 기술혁신성과를 내놓게 되였다는 기쁨에 소조원들은 흐뭇한 심정을 금할수 없었다.

역의 안내원들과 손님들도 기뻐하였다. 그때 김영근동무에게는 새로 설치한 전자알림판을 눈여겨보며 머리를 기웃거리는 한 할머니의 모습이 안겨들었다.

그 할머니는 옆을 지나가던 안내원을 멈추어세우더니 이렇게 묻는것이였다.

《안내원처녀, 내 눈에는 저 글이 보이지 않는구만. 평양으로 떠나는 렬차를 어떻게 타야 하는지 좀 대주겠나?…》

그 소리에 김영근동무의 얼굴은 화끈 달아올랐다.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창조물이 열, 백이면 무엇하겠는가.)

즉시에 그는 소조원들과 다시 마주앉았다.

로인들과 어린이들까지 자기들이 타고가야 할 렬차를 제꺽 알아볼수 있게 전자알림판을 다시 만들자는 김영근동무의 의견을 소조원들은 적극 지지해나섰다.

이렇게 되여 그들은 또다시 어려운 탐구의 길에 나섰다.

3대혁명소조원들은 밤을 새워가며 전자알림판의 프로그람을 다시 짰다. 역의 유능한 기술자인 김창일동무와 지혜를 합쳐가며 여러 장치들도 새로 제작하여 보충하였다. 부족한것이 많고 어려운 조건에서도 그들은 서로 합심하여 본래의것보다 더 크게, 손님들의 편의를 더 잘 보장할수 있게 전자알림판을 훌륭히 완성하였다.

그렇게 완성한 새 전자알림판이 손님들과 안내원들로부터 대단한 호평을 받았다는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3대혁명소조원들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새겨져있는 영광의 일터에서 일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성과에 만족함이 없이 더 높은 목표를 내세웠다.

초급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김성철, 리은철, 안국범, 고광일동무를 비롯한 3대혁명소조원들은 현실에서 일감을 찾아 기술혁신목표를 높이 세운데 기초하여 올해에만도 려행하는 손님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렬차운행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탐구의 길에서 많은 성과를 달성하였다.

이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는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창조의 기준으로 삼고 청춘의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나가는 3대혁명전위들의 정신세계를 다시금 뜨겁게 느끼게 된다.

본사기자 채인철

교원들의 실력향상에 큰 힘을 넣어

해주태권도전문학교에서

각지의 태권도전문학교들이 처음으로 참가한 제18차 정일봉상 전국태권도선수권대회에 참가하여 해당 부류의 태권도 개인맞서기경기에서 남, 녀선수들이 금메달 8개,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를 획득하고 남자단체맞서기경기에서 우승하였으며 종합 1등의 영예를 지니였다. 성과의 비결은 학생들의 기술발전을 위한 학교일군들의 면밀한 사업조직, 교원들의 높은 훈련지도능력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교장 신금옥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조선태권도위원회 사범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교원들의 자질을 부단히 높이기 위하여 불같은 노력을 기울이였다. 경험발표회와 보여주기사업을 자주 조직하여 전반적인 교원들의 기술실무수준을 다같이 높이는 한편 앞선 교수방법과 과학적인 훈련지도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도 짜고들었다.

이 나날에 교원들의 실력이 부쩍 올라갔고 훈련지도의 효과성은 더욱 커졌다. 그와 더불어 학생들의 훈련열의가 앙양되고 특기기술을 소유하기 위한 된바람이 일어번졌으며 승벽심이 고조되는 속에 전국적인 경기에서 성과를 거둘수 있는 높은 실력도 갖추게 되였다.

본사기자

따뜻한 창가에 넘치는 사회주의향기

옥류아동병원을 찾아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직접적인 발기에 따라 풍치수려한 대동강기슭의 문수지구에 훌륭히 일떠선 옥류아동병원이 개원을 선포한 때로부터 2년이 되였다.

그 나날 병원에서 무상치료뿐만아니라 무료교육의 혜택도 함께 받으며 배움의 나래를 활짝 펼쳐온 우리의 아이들이 또 얼마나 아름다운 시대의 모습을 비껴담아 사회주의 내 조국을 노래하고있을가 하는 생각을 하며 우리는 얼마전 이곳을 찾았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어린이들은 나라의 보배이며 우리 혁명의 미래를 떠메고 나갈 혁명의 후비대입니다.》

우리를 기다리고있기라도 하였던듯 반갑게 맞이한 옥류아동병원 교육교양과 과장 림경옥동무의 이야기는 시작부터 우리의 주의를 끌었다.

과장은 병원에서의 교육사업은 한명의 교육자가 수십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학교에서와는 달리 개별지도가 위주로 되고있다고 말하였다.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의 학년과 지능상태 등이 서로 다른데 그 원인이 있다고 피력하고난 그는 이로부터 다방면적인 지식을 소유하는것은 자기들에게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문제로 나선다고 말하였다. 그도그럴것이 서로 다른 학년의 학생들이 서로 다른 과목공부를 하는 과정에 제기하는 물음들을 즉석에서 막힘없이 대답해주어야 하기때문이다.

대상하는 학생들이 모두 환자들이라는 특성은 참된 교육자의 본분을 보다 깊이 새겨안고 교육사업을 진행할것을 요구한다는 과장의 말은 높지 않았으나 우리가 받은 충격은 컸다.

흔히 사람들은 여러차례의 설명에도 리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 스승의 얼굴에 안타까움의 빛이 어리게 되는것을 보게 된다. 하지만 이곳 교원들은 천번중의 단 한번도 밝은 인상을 흐려서는 안된다는 자각을 안고 지금껏 수업을 진행하여왔다. 한것은 교원들의 얼굴이 밝지 못하면 아이들이 인차 주눅이 들어 공부에 재미를 붙이지 못하게 되며 그것은 나아가 치료에도 영향을 주기때문이다.

하여 이곳 교원들은 환자들의 경력과 성격, 취미, 지능 등을 깊이 파악한데 기초하여 문제의 본질을 대번에 리해시키도록 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때로는 아이들의 동심세계에 맞는 언어를 탐구하기 위하여 동요, 동시의 구절구절을 곱씹어외우기도 하였고 때로는 보다 통속적인 리해를 주기 위해 마을의 여러 아이들앞에서 수업도 해보았다.

그렇게 바쳐온 열정이 있어 교원 손수원동무는 오래동안 앓으며 학교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한 삭주군에서 사는 나어린 환자에게 학습에 대한 재미를 인출 불여주어 그의 어머니를 울리였다.

이름그대로 살틀한 웃음을 머금고 설명할 때면 대번에 리해되고 노래춤공부 또한 신바람이나 오전치료만 끝나면 교양원실로 가자고 성화를 부린다는 아이들, 그 아이들의 담당교양원인 홍봄순동무에게도 퍼내고퍼내도 마를줄 모를 자랑이야기가 있었다. 그는 개원후 출석부에 남먼저 이름을 올렸던 평천구역의 한 어린이도 이곳에서 우리 말을 배웠고 어느해 개학날에는 여기서 여러 아이들이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의 과정안에 따라 온 나라 학생들과 함께 첫 수업을 받아 사람들의 눈시울을 적시였다고 말하였다.

《사실 우리 미림이의 어머니를 직접 만나봤더라면…》

이렇게 시작된 교원 송경애동무의 말은 또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것인가.

그가 한가정식솔을 부르듯 한 《미림이의 어머니》는 량강도 혜산시에서 사는 녀성이고 미림이는 그 녀성의 딸이다. 한방울의 물에 우주가 비낀다고 이 하나의 부름에서도 우리는 사랑과 정으로 흐르는 이곳 교원들과 환자들사이의 관계를 짐작하고도 남았다.

미림이의 어머니에게는 고충이 많았다. 딸이 뜻밖의 병으로 다리를 몹시 절고있었기때문이였다. 옥류아동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딸의 병을 고칠수 있다면서 떠미는 동리사람들의 부추김속에 지난해초 렬차에 오르긴 하였지만 그의 고충은 완전히 풀리지 않았다. 그후 병원에 도착하여 딸이 병치료를 받으며 과정안에 따르는 수업까지 받는것을 보면서 그는 참고참았던 울음을 끝내 터뜨리고말았다.

《병치료를 하느라 수업을 받지 못하면 저의 딸의 실력이 그만큼 떨어져 동무들앞에서 위축될가보아 근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 어머니들의 속마음을 그리도 다 아시고 이렇듯 다심하게 돌봐주신단 말입니까. 경애하는 원수님!…》

그러고나서 더 말을 잇지 못했다는 미림이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켰다.

이 땅에 천가닥만가닥으로 내리비치는 태양의 따사로운 빛발아래 한점 그늘이 없이 행복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어찌 그들만이라 하랴.

지난해 봄 옥류아동병원에는 평양미술대학 수험생이 구급으로 들어왔다. 며칠후 그가 침상에서 일어나앉았을 때 뜻밖에도 병원으로는 수험생의 입학시험을 위해 교원들이 들어섰다. 그날 그 수험생이 너무도 감격하여 시험칠 생각도 잊고 앉아 눈물만 하염없이 흘렸다니 진정 인민을 위해 베푸는 당의 사랑의 끝은 그 어디인가.

위대한 태양의 품속에서 꽃펴난 옥류아동병원에서의 가지가지 이야기에 꼭을 붙이면 천절, 만절로 끝없이 울려여갈 장편의 노래가 되리라는 생각에, 바로 이런 고마운 제도에서 우리가 살고 우리의 후대들이 살고있구나 하는 격정에 우리의 눈굽은 뜨겁게 젖어들었다.

중한 병으로 10여년세월 한마디 말조차 번질수 없는 안타까움속에 눈물을 흘리며 살아온 어린이가 그 위대한 후대사랑에 받들려 비로소 말을 번지게 되였다는 누군가의 이야기에 우리는 깊은 상념의 세계에서 깨여났다.

지난해 여름 병원의 고려치료과 입원실에는 청신경장애로 말하지도 듣지도 못하는 학생이 들어왔다.

오래동안 말을 못해본 학생의 혀는 어느 정도 굳어져 이곳 의료일군들의 능력으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언어장애를 풀기가 어려웠다. 과장 한금실, 담당의사 한용원동무를 비롯한 고려치료과 의료일군들은 즉시 교육교양과 교원들과의 협동작전을 진행하기로 결심하였다. 그후 환자는 교원 송경애동무의 적극적인 방조밑에 나서 처음 가갸표를 배웠다.

어느날 한글자, 두글자 또박또박 찍어말하는 아들의 목소리를 10여년만에 듣고난 중구역상하수도관리소에서 일한다는 환자의 어머니는 풀썩 주저앉았다.

한동안 그렇게 앉아 아들의 얼굴을 어루쓸며 눈물만 흘리던 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너의 병을 알고 이런 훌륭한 병원을 세워주신것만 같다고, 진정 그이이시야말로 순간도 떨어져 살수 없는 우리 운명의 어버이이시라고 목놓아울며 말할 때 누구의 가슴인들 세차게 오르내리지 않았으랴.

묻거니 이 지구상에 억만재부를 자랑하고 《만민복지》를 떠드는 나라들이 많다 하지만 평범한 인민의 자식들이 담당의사선생님과 담임교원을 곁에 두고 매끼 영양식사까지 공급받으며 병치료를 하는 나라가 그 어디에 있단 말인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사람을 귀중히 여기는 사회가 아니고서는 천년이 가도, 만년이 가도 이룰수 없는것이기에 며칠전 옥류아동병원을 찾았던 자본주의나라의 한 인사도 이렇게 자기의 심정을 토로한것이다.

사회주의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조용히 불러만 봐도 인민의 나라를 위해 한평생을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슴이 젖어들고 위대한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인민을 떠받들리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다정하신 음성이 들려와 목이 메이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사회주의,

마가을의 짧은 해가 사위여지며 어둠이 깃들무렵 우리는 경건한 마음을 안고 구내에 세워진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지도표식비앞에 다시금 다가섰다.

아이들의 얼굴에 자그마한 그늘이라도 질세라 개원전에도 찾으시고 개원후에도 찾으시며 불멸의 로고를 바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의 자욱을 되새겨보느라니 생각되였다.

위대한 태양의 품속에서 행복만을 알고 자란 이런 아이들이 계급의 총대를 쥐면 21세기의 리수복, 길영조가 되고 붓대를 잡으면 사회주의의 기초를 억세게 다지는 과학자영웅이 되리라고. 그리고 새로운 기적과 혁신으로 대고조전투장을 들었다놓는 위훈의 창조자들이 되리라고.

병원을 나서는 우리의 눈앞에는 입원생활의 나날에 더욱 소중히 간직한 사회주의를 내 한생 총대로 지켜가리라는 맹세를 담아 교원 박정성동무를 비롯한 이곳 교육자들에게 보내왔다는 한 병사의 편지가 다시금 눈앞에 밝혀왔다.

본사기자 방경찬

간절한 소원을 안고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 전자공업성돌격대 대원 손애경동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부름에 적극 호응해나설줄 아는 사람만이 당과 수령에게 충실할수 있으며 일생을 부끄럽지 않게 살수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어느날 하루 일을 끝내고 숙소로 돌아온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 전자공업성돌격대 대원 손애경동무는 뜻밖의 소식에 접하게 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에 적극 이바지한 그의 애국적소행을 온 나라가 알도록 해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돌려주시였던것이다.

뜨거운 격정에 잠겨있는 그에게는 당의 품속에서 사랑과 행복만을 받으며 자라온 나날들이 떠올랐다.

전반적 11년제의무교육의 혜택으로 마음껏 배우던 일이며 중학교를 졸업하고 상급학교에 입학하던 일…

어머니당과 사회주의제도의 고마움을 그 누구보다 깊이 간직하였기에 그는 어려서부터 만수대언덕을 자주 찾았으며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장에 대한 지원사업도 성의껏 하였다.

우리 당의 웅대한 부강조국건설구상에 따라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이 힘있게 진행될 때에도 그는 정든 집을 멀리 두고 건설장으로 용약 달려나갔다. 처음에는 돌격대생활에 익숙되지 않아 고생도 없지 않았다. 손이 부르트고 일도 힘들었지만 그에게는 그것이 한생의 더없는 보람으로 여겨졌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이라면 자진하여 맡아나섰고 돌격대원으로 일하면서도 축산기지건설에 필요한 물자들도 여러차례에 걸쳐 성의껏 마련하여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하지만 그의 자그마한 소행을 널리 헤아려주신분은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그 다음날부터 손애경동무의 손에서는 더욱 불이 이는듯싶었다.

그러던 어느날 저녁 작업장을 돌아보던 돌격대지휘관은 어둠속에서 일손을 다그치고있는 손애경동무를 보게 되였다. 알고보니 하루 일이 끝났지만 다음날 전투의 선행작업을 하고있었다. 비록 녀성의 몸이지만 이악하기로 소문난 그였던것이다.

누가 보건말건 순결한 량심을 묻어가는 나날에 그는 돌격대의 자랑으로 되였다.

《하루빨리 세포등판에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손애경동무의 꾸밈없는 이 말에서 돌격대지휘관은 그의 가슴속에 간직된 뜨거운 진정을 알수 있었다.

오늘도 손애경동무는 자나깨나 간절한 소원을 안고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장에 위훈의 자욱을 뚜렷이 새겨가고있다.

본사기자 김진욱

반미대결전에서의 승리는 우리의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에서 우리의 혁명적무장력이 미제와의 그 어떤 대결전에서도 반드시 승리를 이룩할수 있는 만단의 준비가 되여있다는데 대해 가장 존엄높은 조선로동당의 이름으로 온 세계에 긍지높이 선언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은 오늘 우리의 혁명적무장력이 미제가 원하는 그 어떤 형태의 전쟁에도 다 상대해줄수 있으며 조국의 푸른 하늘과 인민의 안녕을 억척같이 사수할 만단의 준비가 되여있다는것을 당당히 선언할수 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이 말씀은 우리 당이 군대와 인민을 령도하여 억척같이 자위적군사력을 강화해온 영광스러운 70년력사를 총화하는 시대의 분수령에서 우리 혁명적무장력의 준비상태와 필승의 의지를 알리는 철의 선언이다.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열병식은 온 세계를 뜨겁게 달구며 세차게 메아리쳐간 그 위대한 선언의 진리성을 현실로 확증해주었다.

조선인민군 륙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부대종대들과 방사포, 곡사포, 자행포를 비롯한 각종 구경의 포, 장갑차, 땅크, 무인타격기, 전략로케트종대들이 열병광장을 누비며 힘차게 노도쳐나아갔다. 열병대오의 름름한 모습과 우리의 힘과 기술로 만들어낸 최첨단정밀타격수단들에는 우리 공화국을 해치려는 침략의 본거지들을 지구상의 그 어디에 있든 무자비하게 타격하여 흔적도 없이 깨끗이 쓸어버릴 일당백강군의 필승의 의지가 만장약되여있었다. 수많은 열병종대들은 사상정신적으로나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우리 인민군대가 그 어떤 침략세력도 단매에 때려부실수 있는 최정예혁명강군으로 자라났으며 우리 나라는 전인민적, 전국가적방위체계가 부단히 강화되여 금성철벽의 요새로,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전변되였다는것을 만천하에 힘있게 과시하였다.

세계 여러 나라 언론들은 우리 나라가 당창건 70돐경축 열병식에서 《개량된 대륙간탄도미싸일을 시위》하고 《사거리가 대폭 늘어난 신형방사포를 처음으로 공개》하였다고 하면서 날로 강화발전되는 우리의 군사적위력에 대해 광범히 보도하였다.

하지만 세계의 크고작은 일들에 감놓아라 배놓아라 하며 일일이 간참하기 좋아하고 제 비위에 거슬리는 일에 대해서는 눈에 피발을 세우고 날뛰는 미국의 집권세력은 우리의 열병식에 대해서는 물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꾹 다물고있다. 대신 우리의 《도발》과 《위협》에 대해 법석 떠들어대고있다. 미국이 우리의 《도발》과 《위협》에 대한 나발을 더욱 요란하게 불어댄다는것은 그만큼 우리의 군사적위력, 우리 나라의 국력이 비약적으로 강화되고있다는것을 반증해줄뿐이다.

미제는 우리의 《도발》과 《위협》에 《대처》한다는 구실밑에 북남관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전례없이 높아가고있는 지금 이 시각에도 조선반도남쪽과 그 주변에 침략무력을 계속 끌어들이면서 정세를 최악의 상태에로 몰아가고있다. 이미 핵항공모함 《로날드 레간》호와 각종 순양함, 이지스구축함들이 부산앞바다에 들어와 남조선해군과 북침을 노린 대규모련합해상훈련에 광분하였다. 어떻게 해서나 수적, 기술적우세를 차지하고 임의의 시각에 침략전쟁을 도발하자는것이다.

북침도발에 환장한 미제가 우리에게 끝끝내 전쟁을 강요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에 응해줄것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이미 미국의 종국적멸망의 마지막페지를 바로 조선반도가 아닌 미국땅에서 우리의 백두산총대로 보기 좋게 써줄것이라고 여러차례 경고하였다. 미국이 상용무력에 의한 침략전쟁을 강요한다면 우리 식의 상용전쟁으로, 핵무력에 의한 침략전쟁을 도발한다면 우리 식의 핵타격전으로, 싸이버전으로 우리를 압살하려 한다면 우리 식의 령활한 싸이버전으로 미국의 최종멸망을 앞당겨오자는것이 조선로동당의 령도를 받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단호한 결심이고 의지이다.

이번 열병식이 보여준바와 같이 우리 군대는 지상, 해상, 수중, 공중전 등에 필요한 모든 수단들을 다 갖추고있다. 또한 우리 군대와 인민은 피를 즐기는 미제가 도저히 가질수도 흉내낼수도 없는 최강의 정신력과 불굴의 사상의지를 지니고있다. 그리고 우리 당이 밝혀준 주체적인 전략전술과 독특한 전법을 소유하고있다.

1950년대에 미제는 수적, 군사기술적우세를 믿고 우리에게 전쟁을 강요하였다. 미제는 대형전투함선들과 전략폭격기들은 물론 원자탄까지 가지고 미욱하게 날뛰였다. 15개 추종국가들과 일본군국주의자들, 남조선무력까지 합세하였다.

그 당시 우리 공화국과 군대는 너무도 청소하였다. 정규군으로 개편된지 얼마 안되는 우리 혁명무력이 가진 무장장비수준은 미국과 대비조차 할수 없었다. 그야말로 보총과 원자탄과의 대결이였다.

이 전쟁에서 우리는 미제를 보기 좋게 타승하였다. 미제는 우리 군대와 인민앞에 무릎을 꿇고 조선정전협정에 도장을 찍지 않으면 안되였다.

원자탄을 가지고서도 보총을 쥔 우리와의 전쟁에서 수치스러운 패배만을 당한 미국이 오늘의 전쟁에서 승리를 이룩해보겠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노릇이다.

오늘의 현실은 그때와 전혀 다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사상정신력은 지난 시기에 비할바없이 강해졌고 그 위력은 천만군민이 하나로 뭉친 우리의 일심단결에서 력력히 나타나고있다. 우리 인민군대가 활용하는 주체적인 전략전술과 전법은 인류전쟁사에 없는것들이다. 올해 1월말에 성과적으로 진행된 적해상목표에 대한 군종타격훈련에서 우리 군대가 보여준 공중 및 수중전법은 그 어느 전쟁사에도 기록된것이 없는것으로서 주체적인 전법의 일부를 보여준것이다.

1950년대와 근본적으로 달라진것은 우리 나라가 당당한 핵보유국이 되였다는것이다. 이로써 우리는 미제가 원자탄을 가지고 우리 공화국을 일방적으로 위협해온 불공평한 시대를 완전히 끝장내고 평화를 수호하며 반미대결전에서 반드시 승리를 이룩할수 있는 또 하나의 보검을 가지게 되였다. 보총과 원자탄과의 대결에서도 패한 미국이 원자탄과 원자탄과의 대결에서 패배를 면치 못하리라는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조선로동당의 탁월한 령도가 있는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조선로동당이 창건된이래 지난 70년간 우리 군대와 인민은 언제나 백전백승을 떨쳐왔다. 해방후 새 조국건설로부터 시작하여 전후복구건설, 사회주의건설 등 혁명발전의 여러 단계들이 내외원쑤들의 방해 및 침략책동속에서도 성과적으로 수행되고 우리 나라가 사회주의강성국가에로 들어설수 있는 튼튼한 도약대를 마련하게 된것은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우리 당의 독창적인 자위로선과 선군정치가 있었기에 우리 군대가 무적필승의 최정예강군으로 자라났고 우리 나라가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전변될수 있었다.

조선로동당의 령도를 받는 우리 군대와 인민을 당할자 이 세상에 없다.

우리는 반미대결전에서 최후승리를 이룩할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되여있다. 사상정신적, 군사기술적준비를 다 갖춘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제의 침략을 막아내고 조국의 푸른 하늘과 인민의 안녕을 억척같이 지켜나갈것이다.

강 철 수

저능아의 좀상스러운 정탐모략책동

반공화국압살에 환장한 미국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미쳐날뛰고있다.

얼마전 미국의 폭로전문웨브싸이트 《더 인터쎕트》가 폭로한데 의하면 미국방성이 그리스도교인도주의협조단체의 탈을 쓴 《인도주의국제봉사그룹》(HISG)을 리용하여 우리 나라에 대한 정탐행위를 감행하려고 책동하여왔다. 미국방성은 2004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에 이 단체를 리용하여 의복류와 같은 물자들속에 소형라지오, 무선정탐기재 등을 끼워넣어 우리 나라에 들여보내려고 시도하였다고 한다.

우리의 내부에 쉬를 쓸고 핵활동자료와 같은 중요군사비밀들을 내탐하자는것이다.

가판은 미국이 우리 공화국을 더이상 어쩔수 없게 되자 비렬하게도 인도주의협조단체들까지 정탐모략책동에 악용하고있는것이다.

일반적으로 인도주의협조단체들은 사람들의 생활상곤난을 덜어주고 환경조건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도움을 주는것을 사명으로 하고있다. 그런 단체들을 정치적 또는 군사적수단으로 리용하는것은 해당 나라들의 국가존립에 해를 주는 위험한 행위로서 인도주의의 사명과 목적에 전혀 맞지 않으며 국제적원칙에도 심히 배치된다.

그런데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하여 이제는 공공연히 인도주의협조단체들까지 퇴폐적인 반동문화를 우리 나라에 몰래 류포시키는 선전수단, 우리의 내부비밀을 빼내는 정탐수단으로 악용하고있다.

걸핏하면 《신성함》을 제창하던 인도주의까지 정탐모략에 마구 악용하며 인도주의협조단체성원들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는 미국의 극악한 반인도주의적이며 반인권적인 행위는 우리에 대한 적대시정책이 도를 넘어서고있다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미국은 우리의 일심단결을 파괴하고 내부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별의별 책동을 다하여왔다. 그러나 그 모든것은 실패와 좌절을 면치 못하였다. 그래서 인도주의협조단체들을 통해 우리에 대한 정탐활동에 매달리는 좀상스러운 방법에 매달리고있다.

알려진데 의하면 미국방성은 부쉬행정부시기인 2004년 12월에 《인도주의국제봉사그룹》을 내오고 이 단체에 자금을 대주면서 비밀리에 대조선첩보활동을 감행하려고 시도하여왔다. 미국방성은 인도주의를 표방하는 종교단체를 내오고 그를 우리 나라에 들여보내여 간첩활동을 수년간 은밀히 벌리려고 책동하여왔다. 《인도주의국제봉사그룹》 대표인 일본계미국인 케이 히라미네는 미국방성소속 첩보원으로서 이 단체를 통한 대조선간첩활동을 주관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또 종교단체를 리용하여 대조선첩보활동을 벌린다는 사실이 드러날 위험에 빠지게 되자 미국방성은 오바마행정부시기인 2012년에 이 첩보활동계획을 중단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현재 미국은 《인도주의국제봉사그룹》을 대조선정탐활동에 써먹었다는 자료가 폭로된데 대해 소태먹은 우거지상을 하고 한마디 말도 못하고있다. 왜냐하면 그 사실에 대해 부정할수 없는 처지에 빠졌기때문이다.

이번에 드러난 미국의 정탐모략책동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방성이 《인도주의국제봉사그룹》을 통한 간첩활동은 중단하였지만 다른 인도주의협조단체들을 통한 정탐활동은 계속 벌리고있다.

어느 한 인도주의협조단체의 대표가 《인도주의협조단체근무자들의 모험정도에 따라 미국방성의 작전이 더 합리적으로 되고있다.》고 말하였고 이전 미중앙정보국의 한 인물이 《종교인들의 리용은 법적으로 금지되여있으나 인도주의협조단체근무자들의 리용은 금지되여있지 않다.》고 주장한것은 인도주의협조단체들을 리용한 미국의 대조선간첩활동이 계속되고있다는것을 시사해준다.

그런다고 하여 미국이 얻을것은 쥐뿔도 없으며 오히려 손해만 볼뿐이다.

지난 시기 《자선가》나 《관광객》의 탈을 쓰고 우리 나라에 들어와 정탐모략과 적대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미국인들은 한둘이 아니였다. 그들은 모두 체포되여 우리 공화국법에 따라 해당한 형벌을 받았으며 그들의 석방문제로 하여 미국은 매번 수치를 들쓰지 않으면 안되였다.

지금 미국은 매수와 위협공갈 등으로 인도주의협조단체성원들뿐아니라 종교인들 지어 우리 주변나라들의 밀수업자들까지 흡수하여 간첩활동에 써먹고있다. 그런 치졸하고 좀상스러운 방법으로 우리 내부를 파보고 쉬를 쓸어보려고 하는것자체가 패륜아, 저능아의 지저분한 사고방식의 발로이다.

미국은 추하고 치졸하게 벌리는 정탐계획과 작전들이 우리 공화국 해당 기관들의 시야에서 벗어날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그리고 슬한 미국인들이 감옥밥을 먹지 않게 하려거든 인도주의협조단체를 통한 간첩활동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

리 경 수

반인민적악정만을 일삼는 독재《정권》을 강력히 규탄

드러난 비밀조직의 정체, 곤경에 처한 력사쿠데타세력

보수당국의 《국정교과서제》발표로 아비규환의 수라장이 된 남조선에서 집권세력의 비렬한 음모책동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다. 최근 남조선당국이 력사교과서《국정화》추진을 위해 비밀조직을 운영해온 사실이 드러난것이다.

사건은 교육부가 력사교과서《국정화》를 위한 준비사업을 비밀리에 진행하고있다는 정보를 받은 새정치민주련합의원들이 지난 10월 25일 밤 다른 야당의원들과 함께 교육부산하건물인 《국제국립교육원》을 찾아가 현장에서 사건을 공개하면서부터 시작되였다.

남조선언론들이 보도한데 의하면 현장에 도착한 야당의원들이 출입문을 두드리자 2명의 관계자들이 나왔는데 그들은 찾아온 사람들이 야당의원들이라는것을 알자 불에 덴 송아지마냥 화들짝 놀라 출입문을 잠그고는 사무실의 조명도 전부 끈채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다. 야당의원들이 그들에게 몇가지 알아볼것이 있다고 하면서 나오라고 했으나 그들은 전혀 대응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얼마간 시간이 지났을 때 갑자기 70여명의 경찰이 나타나 건물을 둘러싸고 현장을 봉쇄하였다. 경찰들은 야당의원들이 건물안으로 들어갈수 없게 하면서 병력을 더 증강하여 철통같은 경비진을 쳤다고 한다.

하지만 건물안의 비밀은 드러나고야말았다. 사무실이 1층인것으로 하여 야당의원들은 현장을 목격할수 있었다. 그에 의하면 사무실책상우에는 력사교과서《국정화》와 관련한 《정부》문건이 어지럽게 널려있었는데 문건의 제목은 《옳바른 력사교과서상황분석 및 대응전략》,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력사교과서개발방안》 등이였다. 그런가 하면 야당의원들이 들이닥치자 사무실에 있던 관계자들이 황급히 콤퓨터를 비롯한 관련장비들을 감추고 서류뭉치들을 급히 정리하는 모습도 목격되였다. 이것은 남조선당국이 각계의 규탄을 모면하기 위해 이미 전부터 력사교과서《국정화》놀음을 비밀리에 다그쳐왔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이 사실이 폭로될 위험이 조성되자 남조선당국은 부랴부랴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진상을 감추려고 획책한것이다.

남조선당국의 처사는 야당의원들의 격분을 자아냈다. 그들은 현장에 모여든 기자들앞에서 사건의 전말을 폭로하였다.

새정치민주련합은 력사교과서《국정화》와 관련한 작업이 이미 지난 9월말부터 진행되였다고 하면서 보수당국이 운영해온 비밀조직의 구체적내용을 공개하였다. 그에 의하면 충북대학교 사무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21명으로 구성된 이 비밀조직은 계획, 상황관리, 광고, 선전을 기본업무로 하고있었다. 특히 운영계획에는 력사교과서발행체계개선 및 력사교과서개발기본계획수립, 집필진구성 및 교과서용도서편찬심의회구성, 교과서분석 및 대응론리개발, 언론동향파악, 청와대일일보고 등이 포함되여있었다. 이로 하여 남조선당국이 《국정교과서제》발표에 대한 각계의 반응에는 상관없이 그것을 무조건 실행시킬 목적밑에 사전준비를 면밀히 해왔다는것이 날날이 폭로되였다.

바빠맞은 청와대는 하는수없이 교육부를 내세워 력사교과서《국정화》를 위한 비밀조직의 존재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에 대해 구차스러운 변명을 늘어놓았다. 비밀조직의 책임자도 임명되지 않은 상태이며 사업도 최근에 시작되였을뿐이라는것이였다.

하지만 각계의 규탄여론은 잦아들지 않고있다. 비밀조직이 시퍼렇게 살아움직이는데 책임자가 임명되지 않았다는것은 도무지 리해할수 없는 일이며 특히 력사교과서《국정화》가 공식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고 사업을 비밀리에 추진한것자체가 불법이라는것이 남조선각계의 주장이다. 더우기 격분을 자아내는것은 청와대가 일일보고체계까지 세우고 력사교과서《국정화》놀음을 배후에서 직접 지휘한것이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남조선 각계는 민심의 강력한 반대규탄에도 불구하고 력사교과서《국정화》를 음모적인 방법으로 강행해온 현 집권자의 망동을 절대로 묵과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력사교과서《국정화》를 위한 비밀조직의 존재가 드러나고 그에 대한 규탄여론이 높아가자 《새누리당》이 보수당국을 극구 비호해나서고있다. 이 당 패거리들은 야당의원들이 현장을 찾아가자 비밀조직관계자들이 제스스로 문을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야당이 《공무원들을 감금》했다느니, 《사실외곡》이니 하고 떠들어댔다. 《새누리당》대표 김무성은 력사교과서《국정화》를 두둔하면서 나머지 비밀조직구성이 《당연하다.》는 망발을 늘어놓는것도 서슴지 않았다.

지금 야당세력들은 이번 사건은 현 집권세력이 력사교과서《국정화》를 위해 얼마나 집요하게 책동하여왔는가를 웅변적으로 보여준다고 단죄하면서 비밀조직의 해체와 력사교과서《국정화》중지를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남조선언론들은 력사교과서《국정화》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 각계의 항의투쟁이 고조되는 속에 보수당국이 비밀조직을 운영해온 사실까지 폭로되면서 《력사전쟁》은 더욱 치렬한 단계에 들어서고 정국은 마비상태에 빠져들고있다고 전하고있다.

본사기자 장 윤 남

로동개악 저지하고 비정규직 철폐하자

민주로총이 민중총궐기투쟁에 나설것을 호소

남조선신문 《로동과 세계》에 의하면 남조선의 민주로총이 10월 24일 서울의 광화문주변에서 로동개악저지와 비정규직철폐를 위한 대규모집회를 가지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오는 11월 14일 비정규직로동자 5만명을 포함한 광범한 로동자대중의 참가하에 민중총궐기투쟁을 벌리기로 한데 대해 언급하였다. 그날의 총궐기투쟁에서 로동개악저지와 비정규직철폐의 구호를 웨쳐 집권자의 간담을 서늘케 해야 한다고 그들은 언명하였다.

그들은 로동자들이 총궐기투쟁에 이어 총파업을 비롯한 생존권투쟁을 계속 벌려나갈것이라고 하면서 이를 통해 로동개악에 미쳐날뛰는 현 《정부》를 심판하고 비정규직철폐를 실현하자고 말하였다.

로동현장들마다에서 투쟁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들은 로동자들이 뭉쳐 싸운다면 반드시 로동개악을 막아낼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11월 14일 전지역의 로동자들이 서울에 집결하여 민중총궐기투쟁에 나섬으로써 극소수의 권력자들과 재벌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절대다수 민중과 로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집회도중 비정규직로조대표들은 삭발을 하면서 비정규직로동자들이 이번 민중총궐기투쟁에 적극 떨쳐나서자고 호소하였다.

집회가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당국의 로동개악의 부당성과 그 후과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리며 시위행진을 하였다.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비정규직지회 성원들이 롱성투쟁을 벌리고있는 장소에 이른 시위자들은 그들에게 물과 식료품을 보내기 위한 투쟁을 벌렸다.

반민주적인 현《정권》물러나라

전라북도지역 각계 단체들 집회와 시위

남조선당국의 반인민적폭정에 분노한 전라북도지역의 23개 로동, 시민단체들이 10월 30일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집회를 가지고 반민주적인 《정권》의 퇴진을 주장하였다.

단체들은 결의문을 통해 현 《정권》은 대다수의 민중을 가난하게 만들고 소수 재벌들의 배를 불리기에 피눈이 되여 날뛰는 반로동, 반농민, 반서민, 반민주《정권》이라고 단죄하였다.

남조선을 세계적으로 로동시간 1위, 자살률 1위 등 희망과 미래가 없는 암담한 사회로 만든 현 《정권》은 당장 물러나야 한다고 단체들은 강조하였다.

단체들은 《정부》와 여당이 쉬운 해고, 낮은 임금 등 로동개악으로 전체 로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만들고있으며 무분별한 시장개방으로 농업을 위기에 빠뜨리고 농민들을 벼랑끝으로 내몰고있다고 규탄하였다.

전라북도지역의 각계각층이 11.14민중총궐기투쟁에 떨쳐나설것이라고 단체들은 선언하였다.

집회가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박근혜〈정권〉 물러나라.》는 구호를 웨치면서 시위행진을 벌렸다.

【조선중앙통신】

력사교과서《국정화》책동을 당장 중지하라

남조선대학생들 시국선언운동 전개

남조선대학생들이 《유신》독재부활을 꾀하는 당국의 력사교과서《국정화》를 반대하여 시국선언운동에 나섰다.

《력사교과서국정화저지 고려대학교네트워크》는 10월 30일 대학에서 력사교과서《국정화》저지선언식을 가지였다.

모임에서 발언자들은 《정부》가 민중의 목소리에는 귀를 막고 《국정화》를 강행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정부》가 비밀리에 전문집필조를 내오고 《국정교과서》를 만들고있다고 하면서 그들은 《국정화》는 시대에 역행하여 《유신》을 부활시키기 위한것이라고 단죄하였다.

이를 반대하여 고려대학교 학생 7 000명이 시국선언운동에 참가하였다고 그들은 밝혔다.

한편 고려대학교의 력사학전공 대학원생들과 대학원졸업생들도 당국의 력사외곡책동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들은 성명에서 《국정화》자체가 민주주의를 반대하는것이라고 하면서 3.1운동과 4.19혁명, 5.18광주민주화운동, 6월항쟁 등을 력사의 중심에 놓는것은 결코 《반국가적인 력사서술》이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중앙대학교에서는 2 540여명 학생들이 《국정화》를 반대하는 시국선언에 서명하였다.

《력사교과서국정화저지 중앙대학교네트워크》가 10월 29일 중앙대학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실을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중앙대학교 학생들은 당국이 추구하는 력사교과서《국정화》를 반대한다고 언명하였다.

옳바른 력사를 지키기 위해 대학생들은 친일교과서를 만들고있는 매국노들과 싸우고있다고 그들은 피력하였다.

그들은 대학내에 《국정화》를 반대하는 수십장의 대자보들이 나붙고 매일 1인시위가 벌어지고있으며 거리에서 항의투쟁이 전개되고있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수많은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력사외곡을 강행하면서 《국정화》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교과서집필을 위한 비밀조직까지 운영하고있다고 그들은 폭로하였다.

그들은 《정부》가 이 불법적조치들에 대해 사과하고 《국정화》를 당장 중지할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앞서 10월 21일 중앙대학교 력사학과 졸업생 200여명이 력사교과서를 《국정화》하려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주장에 결코 동의할수 없다고 하면서 당국의 력사쿠데타를 단죄하는 선언을 발표하였다.

10월 29일 《력사교과서국정화저지 서울대학교네트워크》도 대학에서 집회를 가지고 서울대학교 학생시국선언을 발표하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정부》가 《국정화》를 반대하는 민중의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하고있다, 눈과 귀가 있다면 매일 거리에 나와 초불을 드는 민중이 보이지 않을수 없는데 자기들만의 정책을 추진하는것이 독재가 아니고 무엇인가고 단죄하였다.

그들은 《정부》가 《국정화》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이를 반대하는 전면적투쟁에 나설것을 마지막으로 통첩한다고 경고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당국의 력사교과서《국정화》를 반대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보수집권세력의 언론장악책동 단죄

남조선 각계가 보수집권세력의 언론장악책동을 강력히 반대하고있다.

전국언론로조 《KBS》본부는 얼마전 성명을 통해 《새누리당》이 추천한 리사들만 참가한 가운데 열린 《KBS》리사회 회의에서 권력에 추종하는자들이 사장후보들로 선정되였다고 비난하였다.

성명은 내용적으로, 절차적으로 부당한 사장후보선정은 전면무효라고 주장하였다.

《KBS국영화》를 기도하는 리사들은 이번 폭거로 벌어질 사태에 대한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고 성명은 경고하였다.

이에 앞서 남조선의 전국언론로조, 민주언론시민련합을 비롯한 10여개 언론, 시민단체들이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가지였다.

단체들은 《KBS》리사회가 선정한 사장후보들은 《KBS》를 로골적인 친《정부》언론으로 전락시킨 현 사장과 특정정당의 《국회》의원, 《정부》의 《KBS》장악책동에 공모하였으며 로조를 탄압하고 부정부패를 일삼은것으로 하여 시민사회로부터 불신임을 받는 대상들이라고 폭로하였다.

단체들은 현 《정부》가 력사교과서《국정화》와 쉬운 해고, 평생비정규직 등을 내용으로 하는 로동개악을 강행하기에 앞서 공영방송, 인터네트언론장악으로 민중여론을 통제하려 하고있다고 규탄하였다.

한편 민주언론시민련합 리사장이 남조선집권세력의 언론장악책동을 단죄하였다.

그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언론장악시도가 벌어지고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인터네트언론들을 통제할 규제조치를 강행하려 하고있으며 《새누리당》은 부당한 자료를 내세워 한 인터네트언론의 편집활동을 장악하려 하고있다고 그는 비난하였다.

이것은 박정희, 전두환군사독재《정권》시기의 언론통제수법이라고 하면서 만일 이것이 실현되면 현재 활동중인 인터네트언론의 절대다수가 문을 닫고 진보적인 인터네트언론의 창간이 억제될것이라는 우려가 각계에서 올려나오고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한 만평작가는 자기의 글에서 현 《정권》이 뻔뻔스럽게 더욱 로골적인 방법으로 언론을 길들이려 하고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시도는 반드시 저지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조선중앙통신】

ㄱ-511743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위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